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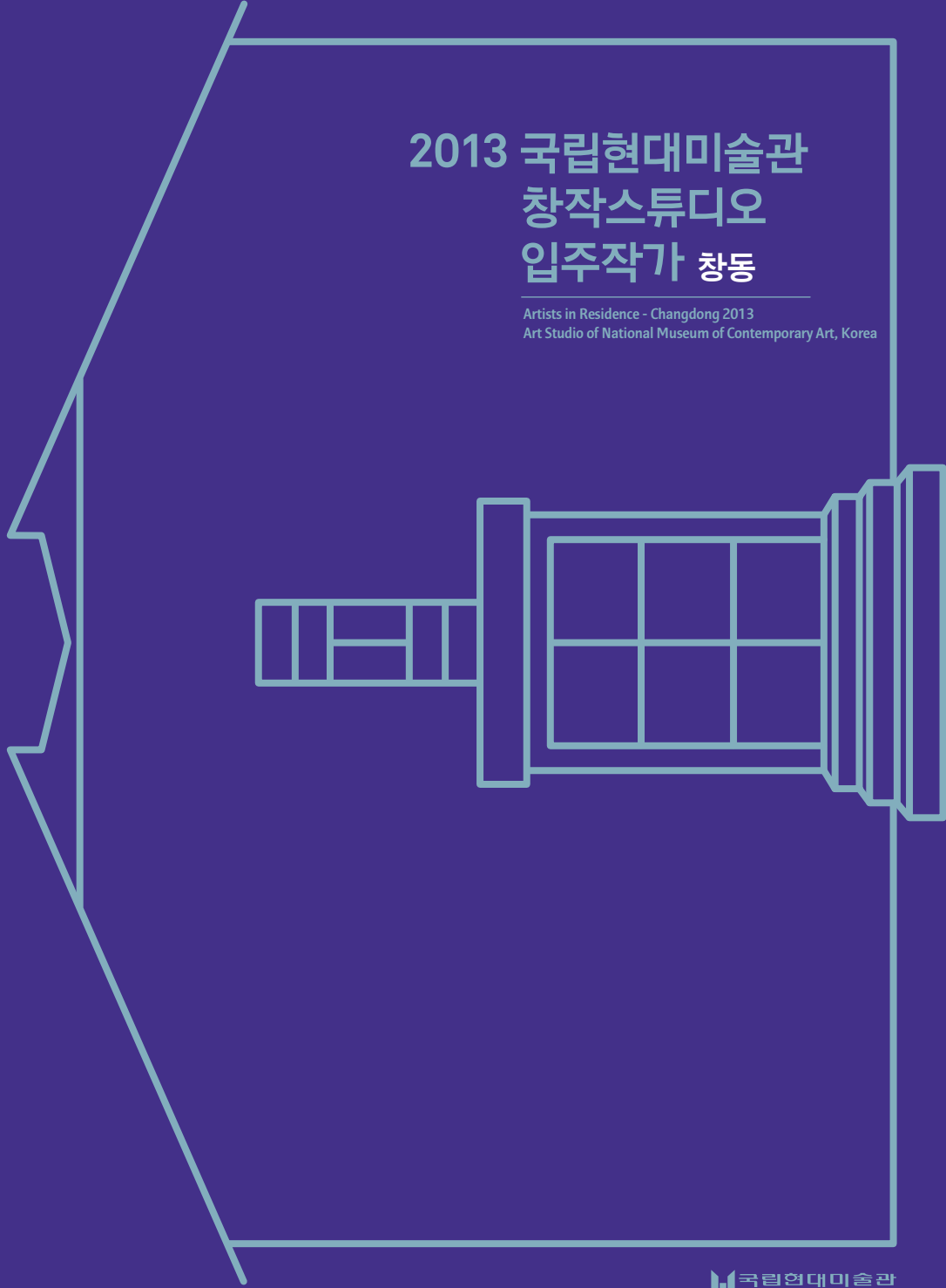


Artists in Residence - Goyang 2013  
Art Studio of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Korea

# 2013 국립현대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고향

국립현대미술관 2013년 입주작가 고향

Artists in Residence 2013 Art Studio of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Korea



# 2013 국립현대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창동

Artists in Residence - Changdong 2013  
Art Studio of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Korea



2013 국립현대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고양

---

Artists in Residence - Goyang 2013  
Art Studio of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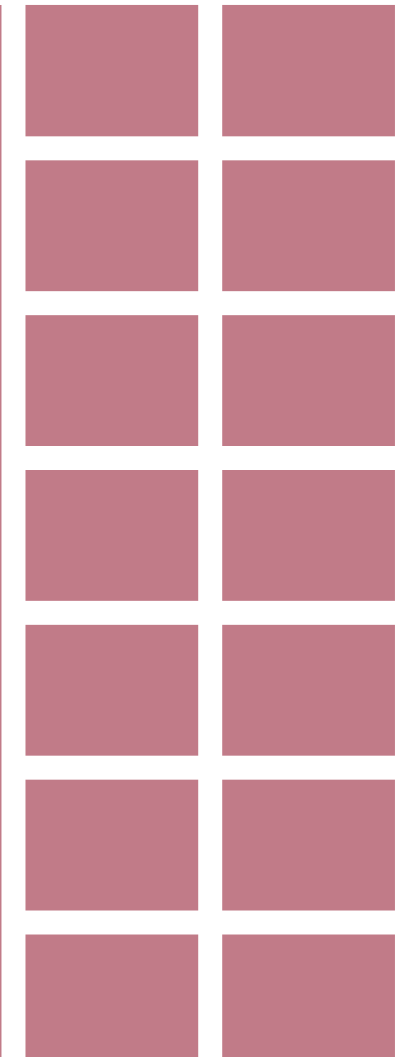


고양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고창선 • 06
	김경주 • 08
	김덕영 • 10
	김도경 • 12
	김민정 • 14
	김민주 • 16
	김수환 • 18
	김용관 • 20
	김지은 • 22
	김태균 • 24
	김효숙 • 26
	박정기 • 28
	심래정 • 30
	애나한 • 32
	양정욱 • 34
	이우성 • 36
	장우진 • 38
	조소희 • 40
	최종희 • 42
	한경우 • 44
	홍정욱 • 46
국제교환입주 프로그램	취즐렌 사자이/프랑스 • 48
	창 휘이 밉/대만 • 50
	필라 마타 듀폰/호주 • 52
	제시카 한셀/뉴질랜드 • 54
	루리 마츠모토/독일 • 56
	아트 품탕곤/독일 • 58
	리자 베버/독일 • 60
	활동현황 • 62
	운영프로그램 • 64

National Art Studio,  
Goyang

RESIDENCY PROGRAM	KOH, Changsun • 06
	KIM, Kyung-Joo • 08
	GIM, Deok Yeoung • 10
	KIM, Do Kyoung • 12
	KIM, Minjung • 14
	KIM, Minjoo • 16
	KIM, Soohwan • 18
	KIM, Yongkwan • 20
	KIM, Ji Eun • 22
	KIM, Tae-Kyun • 24
	KIM, Hyo-Suk • 26
	PARK, Chung-Ki • 28
	SIM, Raejung • 30
	Anna Han • 32
	YANG, Jung-Uk • 34
	LEE, Woosung • 36
	CHANG, Woojin • 38
	CHO, Sohee • 40
	CHOI, Jong-Hee • 42
	HAN, Kyung Woo • 44
	HONG, Jung-Ouk • 46
INTERNATIONAL RESIDENCE EXCHANGE PROGRAM	Ghizlène Chajai/France • 48
	Chang Huei-Ming/Taiwan • 50
	Pilar Mata Dupont/Australia • 52
	Jessica Hansell/New Zealand • 54
	Ruri Matsumoto/Germany • 56
	Att Poomtangon/Germany • 58
	Lisa Weber/Germany • 60
	ACTIVITIES • 62
	PROGRAMS • 64



고양  
창작  
스튜디오  
National Art Studio, Goyang

# 고창선

KOH, Changsun

초기 키네틱아트에서 시작한 본인의 작업은 관람자의 감상방식과 태도를 통해 작가의 경험을 전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2008년 이후 칼로리와 운동 시리즈로 작업을 해오다 2011년에는 사운드작업을 통하여 관람자가 본인의 작품에 개입하여 관람자 퍼포먼스를 유도하는 작업을 하였다.

나의 작업은 동시대 예술가로서의 역할로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변화하는 동시대 문화전반에 대한 예술가의 위치 찾기로 이는 앞으로의 문화적 환경적 변화에 대한 예술가들의 컨텐츠로 내용적 측면에서의 연구, 과거와 다른 예술가들의 성장방식으로 디지털 미디어의 활용과 예술가의 사회적 역할과 관람자의 감상방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뭐하세요!**  
2010, PVC 파이프, 빔프로젝터, CC카메라, 170x240x150cm

**What do you do?**  
2010, PVC pipe, beam projectors, CC cameras, 170x240x150cm



**혼자뛰기**  
2009, 탁구대, 탁구공, 탁구채, 90x120x160cm

**Run alone**  
2009, Ping-pong table, a ping-pong ball, paddle, 90x120x160cm

My work has come from the early kinetic art and developed to a practice where I convey my experience through the viewers' ways of seeing and their attitudes. From 2008, I created a series on calorie and exercise. In 2011, I focused on creating works that incorporate sound, which invite audience to participate and to perform.

My practice is an effort to locate the position of an artist within the contemporary culture that is constantly changing with digital technology. This connects to my interest in the content of artistic practice towards the change of cultural environment, application of digital media as a way of artistic growth that is different from the past, the social role of artists and the viewers' way of appreciating art.

고창선은 계원예술대학 조소과, 영국 글라스고 스쿨 오브 아트 학부, 첼시 컬리지 조소전공 석사,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영상공학과 예술공학 박사를 졸업했다. 2010년 인천문화재단의 기금을 받아 인천아트 플랫폼에서 《Toe the line/ 출발선에서다》, 2009년 갤러리 퍼즈의 초대전《Warm\_up》전 등 7회의 개인전을 하였다. 2011년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이것이 대중미술이다》 외 60여 회의 단체전에 참여하였다.

Changsun Koh studied sculpture at Kaywon School of Art & Design and Glasgow School of Art. He received his MA Fine Art from Chelsea College of Art & Design and a Ph.D. in Technology Art from the Graduate school of Advanced Imaging Science, Multimedia & Film (GSAIM) at Chung-Ang University. He had 7 solo exhibitions, including Warm\_Up(2009) at Gallery Puz. Toe the line(2010) at Incheon Art Platform. He has also participated in a number of group exhibitions, including This is Public Art(2012) at Sejong Museum of Art.



**적 벌 남을 위한 원맨쇼**  
2012, 맥미니, 적외선 센서, 앰프킷트, 스피커, PVC파이프, 100x130x130cm

**One-man**  
2012, Mac mini, IR sensor, amp kits, speakers, PVC pipe, 100x130x130cm

김경주는 미국 뉴욕 스크 오브 비주 얼 아트에서 파인아트 대학원, 숙명여자대학교 학부 서양화 전공 및 조형예술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2001년 미국 버몬트 아티스트 스튜디오 그랜트 수상과 레지던시에 참여, 2002년 유네스코 IFPC, 아쉬버그 파운데이션을 수상, 체코 컨템퍼러리 아트센터 프라하 아티스트 레지던시 참여했다. 2002년 한국 문예진흥기금 수상, 아르코 미술관 《Telling》개인전 이후 갤러리 기획 및 후원으로 7회 개인전, 다수의 국내외 주요 기획그룹전에 초대되고 있다.

Kyung-Joo Kim majored in Fine Arts a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and received her MFA from the School of Visual Arts in New York. She completed her Ph.D. in Fine Arts a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In 2001, she was awarded a grant from Vermont Arts Council and took part in the residency program in Vermont. In 2002, she was awarded the UNESCO-Aschberg Bursaries for Artists and had her first solo exhibition at the Contemporary Art Center in Prague. Upon receiving the grant from Arts Council Korea in the same year, she presented her second solo exhibition *Telling* at the Arko Art Center. Along with her 7 solo exhibitions, she has been participating a number of group exhibitions in and out of Korea.

# 김경주

KIM, Kyung-Joo

중력과 마찰력, 일상 오브제의 재발견을 통한 텍스트와 이미지 놀이

1997년 10월 테이프 / *Telling*, 뉴욕 MFA Studio in School of Visual Arts in NY, USA

...자르고, 붙이고... '3인치의 작은 테이프 조각' 들은 '반복된 동작' 과 '시간의 흐름' 과 '투명한 겹침'을 통해 거대한 도시의 건축물을 닮아간다... '씨실과 날실의 교차'로 작업실에서 완성된 거대한 패브릭 느낌의 유기적 형태는 더 이상 일상의 오브제가 아니라 '대화의 망', '관계의 망'으로 빛과 그림자를 통해 도시의 유령처럼 그 존재를 쏟아낸다.

2002년 9월 텍스트와 이미지 / *Journal Diary* 프라하 Jelensi'9, 11800 Prague1, Czech

...스튜디오의 습한 책들의 종이 곰팡이 냄새, 텍스트가 책 틈을 비집고 내 앞으로 다가온다. 투명한 필름으로 만들어진 텍스트는 방안의 사방 벽을 타고 흘러내린다. 아침에 천장부터 바닥까지 설치한 텍스트는 '시간과 중력' 만으로 저녁쯤에는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 낸다.

2013년 2월 마찰력과 흔적 / *Can you feel it?* 국립현대 고양창작 스튜디오, 한국

...투명 테이프는 스quee가 되고 스quee는 텍스트가 되고 텍스트는 다시 투명한 거대한 자연을 닮은 추상적인 이미지가 된다... 투명한 필름의 조각이 마찰력으로 진공청소기에 빨려 들어가듯이 벽으로 날렵하게 안착한다. '반복적으로 쓸어내고 지워내기' 흡사 '숨바꼭질 놀이'와 같다. 붙이고 지우기를 반복... 결국 시간 차이를 두고 여기서 끝난 놀이는...곧 다시 저기서 시작된다...

Text and Image Play through the Rediscovery of Gravity, Friction, and Ordinary Objects.

October 1997, *Cellular Tape* / *Telling*, MFA Studio in School of Visual Arts in NY, USA

...Cut, paste... 'Small 3-inch pieces of cellular tape' come to resemble the structures of the huge city by 'repeated movements' and 'the flow of time' and 'transparent overlapping'... The huge organic form that feels like fabric is completed by 'the crossing of warp and weft' in the studio, and it is not anymore an ordinary object but 'a web of conversation' and 'a web of relationship' that pours its existence out through light and shade like a ghost in the city.

September 2001, *Text and Image* / *Journal Diary*, Jelensi'9, 11800 Prague 1, Czech

...The smell of mold in the moistened books in the studio and their texts move between them and come front to me. Made with a transparent film, the texts run down on the walls around the studio. Installed in the morning from floor to ceiling, they generate a new form around evening only with the force of 'time and gravity'.

February 2013, *Friction and Traces* / *Can you feel it?*, Goyang Art Studio, Korea

...The transparent cellular tape becomes a square, a square becomes a text, the text once again becomes an abstract transparent image that resembles the nature... A piece of transparent film quickly lands on a wall as if it is sucked into a vacuum cleaner. 'Repeatedly cleaning out and erasing' is just like a 'hide-and-seek'. To repeat putting and erasing ... the game that is ended with a time gap ... is started soon again in there at another place...



텔링- KJ's Drawing from NY to Seoul  
1999-2013, 3M 필름, 화이트 테이프,  
각150x150cm, 250x250cm

Telling- KJ's Drawing from NY to Seoul  
1999-2013, Pink and white 3M tapes,  
150x150cm, 250x250cm ea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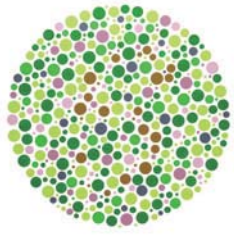
텔링- KJ's Drawing from NY to Seoul  
1999-2013, 필름 시트에 블루마커, 400x100cm

Telling- KJ's Drawing from NY to Seoul  
1999-2013, Blue marker on film sheet, 400x100cm



2013 KJ's Friction Drawing part 1  
2013, OHP 컬러 필름지, 가변설치

2013 KJ's Friction Drawing part 1  
2013, OHP Color film sheet, Dimensions variable



**No6**  
2012, 캔버스에 아크릴, 110x110cm

**No6**  
2012, Acrylic on canvas, 110x110cm

## 김덕영

GIM, Deok Yeung

작업의 주된 내용은 겉과 속, 알맹이와 껍데기 같은 양면(兩面) 혹은 이면(異面)의 공존에 대한 이야기다. 지난 2008년과 2009년에 테이프를 이용하여 겉과 속이라는 테마에 대한 작업을 진행하면서 <Parasite Project(기생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을 구체화했다. 이를 토대로 2010년의 <Parasite Project #1>에서는 테이프를 오브제와 공간 안에 삽입하여 새로운 삶을 부여하는 작업을 하였고, 다음해인 2011년에는 내부 반응에 대한 결과적인 이미지를 중점적으로 반영하는 <Parasite Project>의 두 번째 이야기 <Pang!>을 진행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고통과 이에 대한 반응처럼 표출되어야 할 에너지 자체는 언젠가 어떠한 현상으로도 결국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것이 포화상태에 이를 때 '겉'이라는 틀은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고, 무언가에 의해 망가지고 변형되며 새로운 이미지들을 만들어 낸다. 이러한 반응에 대한 결과적 이미지인 균열과 변형을 이용하여 '사건'을 결과물로 제시함으로써, 현재 우리의 상황과 주위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원인이나 과정을 다시금 고찰해보도록 보는 이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2011 작가노트 중)

색각이상자인 본인은 2012년에는 색각검사표를 이용하여 '본다'와 '보지 못한다'의 개념을 '본다'와 '조금 다르게 본다'라는 개념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즉, 조금 다른 시선에서 보이는 모습 그대로를 평면에 옮김으로써, 다수에 의해 정해진 틀 자체를 소수의 시선으로 응시하는 방법론을 제시한다.

김덕영은 경희대학교에서 미술학 학사와 석사를 취득하였다. 2008년 《Wave of Emotion》이라는 타이틀로 첫 개인전을 가진 후, 2009년 부산에 대안공간 반디에서 두 번째 개인전 《Between Two Worlds》를 가졌다. 2010년 《Parasite Project(기생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2011년 《Pang!》전시로 《Parasite Project》의 두 번째 이야기를 진행 하였다. 2012년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운영 하는 SeMA 난지 레지던시 입주작가로 활동을 하였다.

Deok Yeung Gim received his BFA and MFA in Sculpture from Kyung Hee University. He had his first solo exhibition in 2008, titled *Wave of emotion*, at YOGIGA Expression Gallery and the second solo exhibition *Between Two Worlds* in 2009 at Alternative Space Bandee in Busan. In 2010, he started *Parasite Project*, which led to two exhibitions of which the second presentation *Pang!*(2011) at Gallery Mui. He was an artist in residence at Nanji Art Studio in 2012.

My work mainly deals with the story of the coexistence of two sides or of the backsides that resemble the both sides of the inside and outside, substance and its shell. Working on the theme of the inside and the outside in 2008 and 2009 with the material of paper tape, I made my plan for the *Parasite Project* more concrete. Based upon my plan, I created works that gave a new life to the material by inserting it into objects and space in the exhibition *Parasite Project #1* in 2010. In the next year, I presented the second story of the project with the title *Pang!*, which focused on reflecting the resulting images from the inner reactions.

A stress is formed within the hidden framework and builds up until one day a phenomenon occurs. The outside, physical framework, which is no longer bearable, is destroyed and transformed and ultimately, new images are formed. There is a contained space, hidden and protected until the outside cannot bear itself anymore. It cracks, bursts out and occasionally, creates something in an aggressive form.

I documented my exploration by showing the image's results of this reaction, the cracks and transformations. The outcome created is intended for the viewer to think about the situations, reasons or processes that led to the phenomena.

- From an artist's note, 2011

Being a person with a color defect, I have been transforming the idea of 'seeing' and 'being unable to see' into 'seeing' and 'seeing a little differently,' using a chart for testing color vision defect. In other words, by conveying what is seen from a slightly different point of view onto the flat surface, I present a methodology where I see the frame of thought decided by the majority through an eye of the minority.



**Pang : Defensive/Offensive Space**  
2011, 합판, 수성페인트, 검정  
화멜트(염정색 글루), 가법설치

**Pang : Defensive/Offensive Space**  
2011, Veneer, water paint, black glue,  
Dimensions variable

# 김도경

## KIM, Do Kyoung

제 작업은, 일상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물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고 조합하는 작업입니다. 즉, 제가 바라보고자 하는 사물의 모습은, 일상의 반복을 통해 쌓여져 가는 시간 속에서 같지만 다르게 보려는 시도로써 표현됩니다. 일상사물을 끄집어내어 작업을 하다 보면, 지루할 수도 막막할 수도 있는 상황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정직하게 상황을 받아들이고 조금씩으로 제 자신을 내몰지 않고 담담하게 작업하려고 노력합니다. 작업의 주요대상은 의자, 컵, 작업책상, 옷과 같은 일상사물입니다. 이러한 일상사물을 집요하게 수집하고, 관찰하며 그것들을 모아서 형태를 상징화시키고 기능이 가진 의미보다는 다른 의미를 찾아서 작업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사물이 무엇이 되어 주길 바라는 일종의 기대 혹은 바람을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작품 안에서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와 시각이 자연스럽게 보이게끔 작업합니다.

작업의 방법에 있어서, 반복적인 관찰과 기록을 통한 작업을 기본으로 하고, 조각, 드로잉, 드로잉 애니메이션, 판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단조롭고 많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작가의 일상과 반복적인 행위에서 작가와 작업의 의미, 그리고 과정을 작품 안에서 담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작가가 경험한 특정한 시간을 중심으로 오브제와 시간, 오브제와 공간에 대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도경은 전남대학교에서 조소를 전공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조소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같은 해 《I'm working》의 첫 번째 개인전을 가졌다. 다음해에 런던의 슬레이드 스쿨에 입학하여 파인아트를 전공했고, 졸업전에서 Bartolomeu Dos Santos 상을 수상하며 석사학위를 마쳤다. 이후에 한국에 돌아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차세대예술인력집중육성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2011-2012년에 창작활동 지원을 받았다. 더불어, 2011년 김종영미술관의 창작지원작가로 선정되어 《My Space》라는 제목으로 개인전을 가지고, 2012년에는 관훈갤러리에서 《Time Drawing》으로 개인전을 가졌다.

Do Kyoung Kim studied Sculpture at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nd received her MFA in Sculpture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e same year of her graduation from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she had her first solo exhibition, titled *I'm Working*. In 2007, Kim entered the Slade School of Fine Art at University College London. In the graduation exhibition, she was awarded the Bartolomeu Dos Santos Memoria, a prize that is given to only one of graduates each year. After her graduation in London, she came back to Korea and was selected as a participating artist of ARKO Young Art Frontier (AYAF) for 2011 and 2012. Along with her participation in AYAF, she was also chosen as a grantee of Kim Chong Young Museum's artist support program in 2011 and held a solo exhibition *My Space*. In 2012, Kim held another solo exhibition with the title *Time Drawing* at KWANHOON Gallery in Seoul.

About my work, they are works that create and compound a new world through ordinary objects that we can see in our everyday lives. In other words, the forms of objects that I want to see, they are expressed as an attempt to take the same yet different view within the time by repeating everyday life. While working with ordinary objects, I sometimes face situations that can be either boring or clueless. Whenever that happens, I try to take the situation honestly, not to push myself towards impatience, and to work calmly.

The main subjects of my work are ordinary objects such as chair, cup, working table and clothes. I persistently collect such objects, observe them, symbolize their form and find different meanings than their functional meanings. Since these processes start from a kind of expectation or wish for the objects to become certain things, I make my works naturally display very personal stories and views.

In terms of the working method, repeated observation and recording take the basis of my practice, which are supported by a variety of media including sculpture, drawing, animation made of drawings and printing. Through these, I try to convey the meaning of being an artist and of artwork within the monotonous routine of an artist and her repeated behavior. Along with that, I try to convey the process within my work.

Currently, I'm working on the theme of object and time, and object and space, focusing on a specific time period that have experienced.



**Rainbow**  
2008-2009, 동판, 가변설치 | **Rainbow**  
2008-2009, Copper plate, Dimensions variable

# 김민정

KIM, Minjung

나는 생각하는 것을 좋아한다. 또한 주위를 둘러보는 것을 좋아한다.

내 영역은 어디까지고, 어떻게 형성되며, 때로는 무엇에 반대해 경계를 치는지가 나의 질문이다. 이에 답하기 위해 물질적, 육체적으로, 나는 어떠한 것에 둘러싸여 있으며 또, 무엇을 먹고 마시며 소비하는가를 살핀다. 그것을 통해, 정신적으로 어떠한 환경 아래에 있는지, 무엇을 흡수하고 또 어떠한 것을 뱉어내는지 유추해본다. 이러한 것들을 풍경으로 그려내는 동안 정신 영역을 한계하는 경계선에 관해 생각해 보기도 한다.

나는 도시에서 자라 반짝이는 소원도와 높은 유리 건물들, 밤이 낮보다 더 화려한 색을 뽐내는 도시가 익숙하다. 언제부터인지 이 같은 당연한 익숙함들이 내 안에 경계를 만든다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어느새 살펴보니 내 안에 수용할 수 있는, 또는 편안할 수 있는 만큼의 영역을 확보하고, 그 영역을 위한 수많은 경계들을 긋고 그 안에 움츠리고 들어가 있다. 나는 모든 것들의 관계 안에 그러한 영역들이 존재하고 그 존재하는 영역들이 맞닿아 혹은 부딪혀 경계를 만드는 곳에 주목한다.



**인공美**  
2009, 스크린 프린트한 스프레이봉투, 거즈, 벽돌, 가변설치



**가짜**  
2009, 스크린 프린트한 필름들, 뾰족한 쇠봉, 나뭇가지, 검정실, 레진, 345x330x419cm

**Plasticated Falsity**  
2009, Screenprinted films, sharpened rods, branches, threads, resin, 345x330x419cm

김민정은 홍익대학교 판화과와 미국 시카고 예술대학교 프린트미디어과를 졸업하였다. 2011년 벨기에 프랑스 마자리엘 센추럼 레지던시에 참가해 작품을 기획한 바 있으며 2010년에는 마이원힐스이미지로 시카고의 갤러리엑스에서 개인전을 진행했다. 존플렉스맨아티스트북 컬렉션에서는 「난 어젯밤에 많은 말을 했지」, 「갈팡질팡」 2010년 아티스트북 두 권을 소장 중이다. 해외 다수의 기획전에 참여하였으며 2013년 쿤스트독 등에서 작품을 선보인다.

Minjung Kim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of Sculpture at Hongik University and received her MFA from the Department of Printmedia at the School of Art Institute of Chicago (SAIC). In 2010, she presented her solo exhibition titled *My One False Image* at Gallery X in Chicago. In the following year, she was an artist in residence at Frans Masereel Centrum in Belgium. Along with the solo exhibition, she has participated in a number of group exhibitions. Her two books, *I said too much last night* and *Dithering*, are in the John Flaxman Artist Book Collection. In 2013, she is presenting her work at Kunst Doc Gallery in Seoul.

I like to think. And I also like to look around myself.

My question is about the limit of my territory, how it is formed and what makes me put boundaries against. To answer to the question, I observe the things that surround me physically and materially, and, what I eat, drink and consume. Through these, I infer what kind of environment I'm mentally situated in, what I absorb and what I release. I sometimes think about the boundary line that limits the territory of mind while I materialize such things as landscapes.

I was born in a city, so I'm accustomed to the city where there are glittering show windows and tall glass buildings, all of which boast more splendid colors during the night than during the day. One day, I started to realize that such unquestionable familiarity is making a boundary within myself. I was securing a territory that I could accommodate or be comfortable with, drawing countless boundaries for it and huddle myself into it. I think there always are such territories within the relationship of everything, and I focus on the place where boundaries are made by a meeting or a clash between such existing territories.



**얼음**  
2010, 흰 페인트, 아크릴, 잉크젯 프린트, 갈대, 345x330x419cm

**Ice**  
2010, White paint on floor, plexiglass, inkjet prints, weed, 345x330x419cm



**물을 길다**  
2012, 장지에 먹과 채색,  
130x193cm

**Draw Water**  
2012, Ink and color on Korean paper,  
130x193cm

## 김민주

KIM, Minjoo

나에게 그림은 혼자 묻고 답하고 생각하고 노닐 수 있는 곳이다.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물음에 어떤 답을 해야 할지는 모르지만 그 과정 속의 고민과 생각을 즐기고 상상한다. 어떠한 대단한 물음이나 그에 대한 답을 꼭 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저 묻고 답하기를 반복하다가 무엇인가가 떠오르면 그것을 이리저리 상상해보며 손으로 끼적여 보는 것이다. 어느 날은 생각했던 형상과 비슷해서 흡족할 때도 있고, 다른 날은 영시원찮은 날도 있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남겨지는 것들이 나의 그림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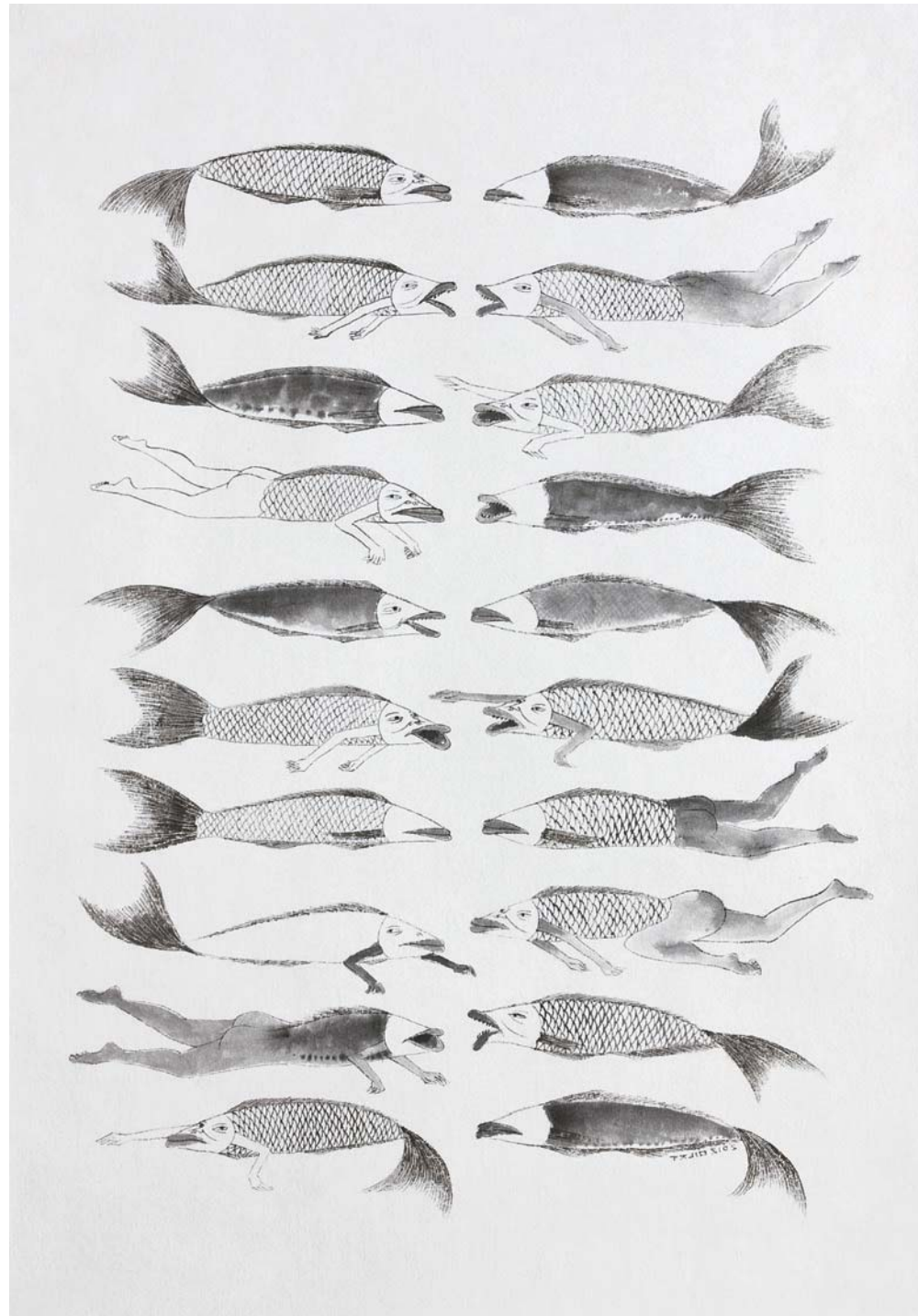
일상의 세계와 상상의 세계를 혼합하여 현실 공간 속으로 이상적 자연을 가져와 보기도 하고, 깊다 못해 까마득한 연못에서 그 물이나 물바가지를 허우적거리 보기도 하고, 물고기를 잡지 않고 물고기와 하나가 되는 어부와 나무를 베어내지 않고 나무와 하나가 되는 나무꾼이 되어보기도 하는 것이다.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 역할들이 경계를 허물고 뒤섞이며 구분이 모호해지는 지점을 통해 일탈과 상상의 유희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내가 하는 고민과 생각, 상상들이 남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터이다. 나의 흔적들을 보는 이들에게 삶이 너무 바빠 망각하고 있던 어떤 즐거움을 잠시나마 찾아볼 수 있는 쉼을 청해보는 것이다.

김민주는 서울대학교 동양화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였다. 2007년 갤러리라메르의 《어락도魚樂園》를 시작으로 2009년 미술공간現 《어락원魚樂園》, 2011년 한진프라자 갤러리 《흥얼흥얼Humming》, 2012년 공아트스페이스 《어초문담漁樵問答》으로 개인전을 가졌다. 2012년에는 서울시립미술관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에 입주하였다.

Minjoo Kim received her BFA and MFA in Oriental Painting from the Department of Oriental Painting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Starting from her first solo exhibition Paintings of *The Happiness of Fish*(2007) at Gallery La Mer, she presented her works in *Paradise of Fish*(2009) at Artspace-hyun, *Humming*(2011) at KEPCO Art Center Gallery and *Dialogue between a Fisher and Woodcutter*(2012) at Gong Art Space. In 2012, she was an artist in residence at Nanji Art Studio.

Painting to me is a place where I can ask, answer myself and wander about within it. I don't know what is it that I want to ask or what answer I have to give to my question, but I enjoy and imagine the efforts and thoughts in the process. I don't have to come up with a great question nor seek an answer to that question. I simply repeat questioning and answering; if there is something that emerges, I imagine around it and make some scribbles. In some days it is satisfactory since the images resemble my thoughts, in some other days it is not so good. My paintings are also the things that remain after this process. Sometimes I mix my everyday world and an imaginary world together and bring the ideal nature into the real space, other times I put a fishing net or a dipper into a pond that is deeper than abyss and wave them, or become a fisher who does not catch fishes but merge with the fishes or a woodcutter who does not cut trees but merge with the trees. I attempt to find the amusement of deviation and imagination through points where different time, space and roles are mixed with their boundaries blurred and their distinctions obscure. My concerns, thoughts and imaginations would not be that different from what others have in their minds. What I do is to ask the viewers of my traces for taking a short rest where they can find a certain joy that has been forgotten by their busy lives.



**어초문담**  
2012, 순지에 먹과 채색, 56x38cm

**Dialogue between a Fisher and a Woodcutter**  
2012, Ink and color on Korean paper, 56x38cm



**부랑자들**  
2013, 단채널 영상, 15초 반복

**Tramps**  
2013, Single channel video, 15sec. loop

## 김수환

KIM, Soohw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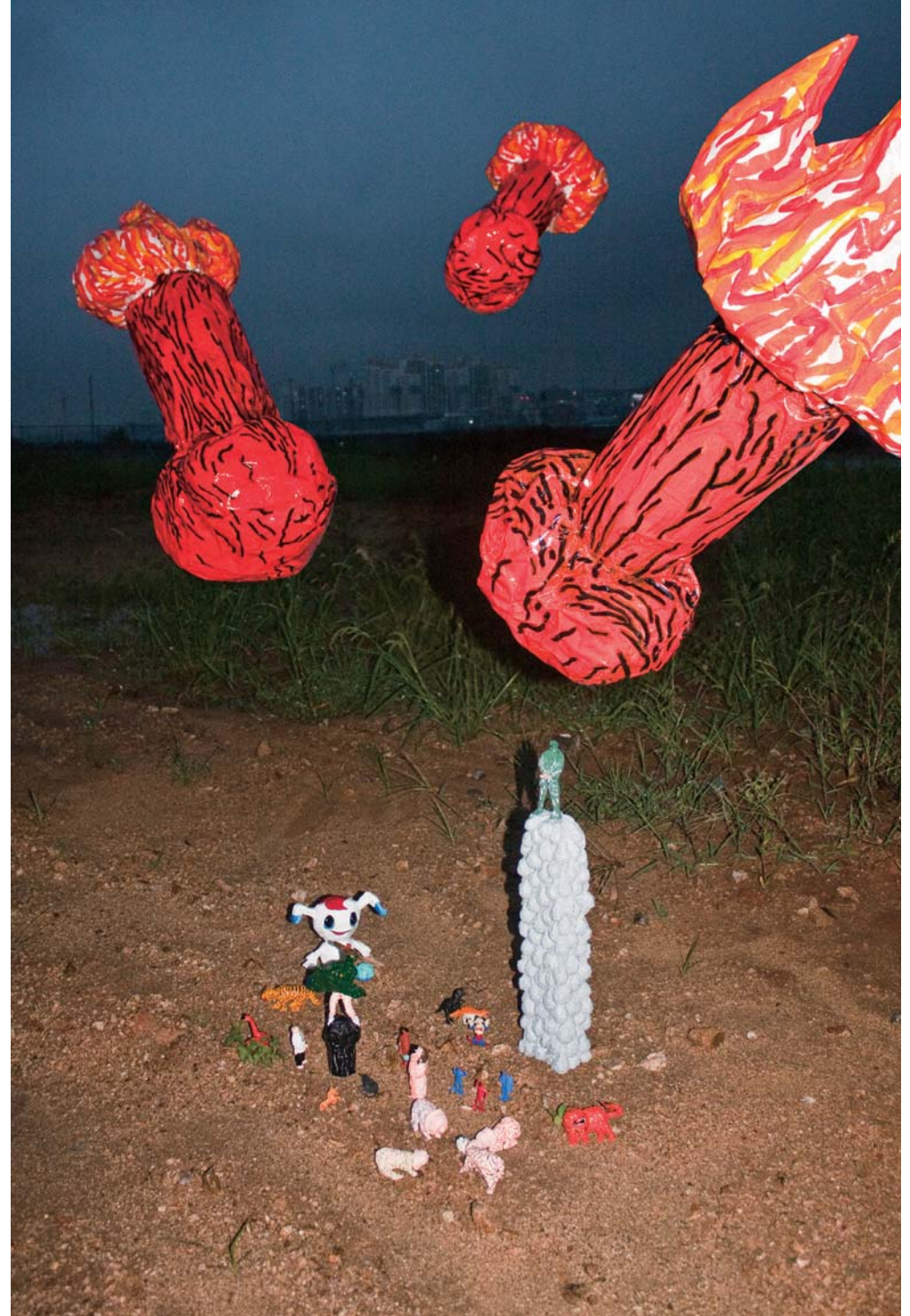
나는 내가 속한 삶의 모습들을 관찰해 왔다. 그 모습들은 나의 작업에서 욕망의 이미지로 그려지는데 주로 도구와 노동을 통해 억압된 욕망이 아닌 변질된 욕망을 이야기해왔다. 처음 인간의 노동은 욕망의 실현을 위한 행위였으며 욕망은 도구에 투영되어 그것의 발달과 함께 도시와 사회, 국가라는 시스템을 완성했고 지금의 문명과 역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하지만 개인들의 욕망이 뒤섞인 시스템은 오히려 개인을 물질과 권력에 기대고 사회의 도구로, 물질의 노예로 전락시켰다. 결국 욕망은 거대해지고 충돌하고 좌절하면서, 그러나 여전히 맹목적으로 근본적인 반성 없이 뒤틀린 성욕이나 매체, 폭력 등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이러한 생각들은 건설현장에서의 경험이나 국가의 산업화를 지나 아직까지도 노동자로 살고 있는 가족, 나의 지역적 환경(인천)들을 바탕으로 작업에 투영되어왔다. 자동차로 변해버린 아버지와 배로 변한 삼촌, 남근을 상징하는 미사일이 떨어지고 있는 도시 등의 작업이 그것이다. 이를 표현하는데 페인팅이나 드로잉, 입체, 사운드와 미디어매체를 이용하여 전반적인 이야기와 현장성을 전달하려한다.

최근에는 견고히 여겨지던 사회구조와 개인들이 쫓고 있는 욕망이 얼마나 값싸고 어이없는 코미디이며 허술하고 허망하고 반복적인 동시에 비효율적인가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반대로 이러한 것들 속에 개인의 작은 추억이나 역사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이 재개발로 마을이 파괴되고 사람들이 쫓겨나듯 나약하게 흔적도 없이 묻히고 사라진다는 것이다. 내가 본세상은 절망적이고 슬픈 이야기 투성이다. 하지만 언젠가 변질된 채 커져가는 욕망대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망껏 웃고 춤추고 떠들 수 있는 순수한 욕망으로 가득한 즐거운 세상 이오리라는 희망을 품고 창작에 몸을 실어본다.

김수환은 인천대 미술학과에서 서양화를 전공하고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노가다NOGADA> 시리즈에서 개인이나 가족사 등 작가 주변의 모습들을 통해 도구와 노동, 욕망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들을 진행해왔다. 2007년 인천의 폐공장을 이용한 《집들이642-7》, 2008년 개인전 《노가다주식회사》, 2012년 개인전 《즐거운 나의 집》을 열었고 이 밖에 '601비상'과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포스터'를 협업하는 등 일러스트레이터로서도 활동해 왔다.

Soohwan Kim received his BFA and MFA in Western Painting from Incheon University. With *NOGADA* series, he has been working on stories about the relationship among tools, labor and desire through his intimate surroundings of personal and family history. He had a number of exhibitions that include *642-7 Housewarming*(2007) at an abandoned factory in Incheon and solo exhibitions *NOGADA, Inc.*(2008) and *Home Sweet Home*(2012). Along with his artistic practice, he has been also been working as a professional illustrator, working in collaboration with 601BISANG for the poster of EXPO 2012 Yeosu Korea.

I have been observing the appearances of my life that I belong to. They are depicted as images of desire in my work, where I have been telling not about repressed desire but about corrupt desire. I have done so mainly through the theme of tools and labor. At the start of human life, labor was an act to realize human desire. The desire was reflected in tools, which led to completion of the system of city, society and state. It is running the current civilization and history. However, the system where each individual's desire is mixed in confusion rather ruined individuals to depend on material and power, degrading to a tool of society and a slave of material. What I think is that desire became bigger, but it clashed and collapsed while still not reflecting on itself ultimately: It is corrupted as a twisted sexual desire, media or violence. These thoughts are reflected in my work with my personal and local background: I have an experience of working at construction sites, my family is still living as a working class after all those industrialization period and I'm living in Incheon. A figure of a father transformed into a car, an uncle into a ship or a city being bombarded with a missile that symbolizes a phallus are the manifestations of such backgrounds. I intend to convey the general story and verisimilitude by employing painting, drawing, three-dimensional work, sound and a variety of media in expressing them. Recently, I'm interested in the seemingly solid social structure and the desire that is sought out by individuals in a respect that how they are so cheap, shabby, vain, repeated yet inefficient and being an absurd comedy. On the contrary, there clearly exist small memories and histories of individuals within them. And they are buried and died away with weaknesses if towns are destroyed and people are evicted with redevelopment plans. The world as I see it is full of hopeless and sad stories. But I put myself into the path of creation with a hope that there will be a world that is filled with pure desire instead of the corrupt and growing desire, where one can laugh, dance and shout as much as he wants with his loved ones.



**욕망의 영웅**  
2012, 창호지에 아크릴, 스티로폼, 가변설치

**Hero of Desire**  
2012, Acrylic on paper, polystyrene, Dimensions variable



**Syllabrick**  
2007, 혼합매체,  
가변설치

**Syllabrick**  
2007, Mixed media,  
Dimensions variable

김용관은 홍익대학교 판화과를 졸업했다. 2007년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다방 기획의 외부 전시인 《The Bus》를 통해 작품 활동을 시작하여, 《SeMA 이미지의 틈》, 《Collage of Memories-Korean Contemporary Art》, 《SeMA 12개의 방을 위한 12개의 이벤트》 등의 기획전에 참여했다. 개인적으로는 2010년 《시차적 표시영역》을, 서울시립미술관의 SeMA 신진작가 전시지원 프로그램으로 2011년 《Syllabrick》을 경기도미술관 프로젝트갤러리에서 진행한 바 있다. 2010년 경기도미술관 경기창작센터, 2012년 서울시립미술관 남지미술창작스튜디오에 입주해 활동했다.

Yongkwan Kim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of Printmaking at Hongik University. He participated in a number of group exhibitions, including *The Bus* (2007), organized by Project Space Sarubia, *The Gap of Image*(2010), *Collage of Memories-Korean Contemporary Art*(2010) and *12 Events for 12 Rooms* (2012). Along with the group exhibitions, he has also had solo exhibitions including *Syllabrick*(2011) at Gyeonggi Museum of Art Project Gallery. He was an artist in residence at Gyeonggi Creation Center(2010) and Nanji Art Studio(2012).

## 김용관

KIM, Yongkwan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는 언제나 원근이 적용된다.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무수한 물리적인 혹은 관념적인 가치들은 결코 필연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앞과 뒤의 구분이 명확하며 그것은 마치 당위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인다. 나는 이러한 수직적 구조에 의문을 가지며 가치를 수평으로 재배열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나의 완결된 구조를 분해하여 재배열하거나, 임의로 만든 작은 단위의 블록들을 무작위로 쌓으며 패턴을 찾고 그 패턴을 다시금 새로운 조합의 룰로 사용하거나, 언어를 구성하는 의미와 형식의 관계를 바꾸어 폐기되고 사라져가는 가치를 다시금 되살리거나, 투시를 없애 앞과 뒤의 관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입체를 평면으로 납작하게 만드는 등의 일련의 작업들을 하고 있다. 태도는 관점을 반영한다. 나는 작품을 진행하는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실험, 시도들을 동시에 병행한다. 어떠한 것은 최초의 생각과 동일하게 완결이 되고, 다른 것은 연결되어 있는 다른 가치들과 부딪히며 의도와는 다른 산물이 된다. 부산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한데 묶여 존재감을 드러내기도 한다. 여러 군의 작품들은 직선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원인과 결과로서, 과거와 현재로서,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하나의 지도처럼 펼쳐져 있다. 결국 어떠한 길을 선택하더라도 모든 곳으로 통하게 된다. 내 대부분의 작업들은 이러한 수평적 관점, 태도가 만들어내는 다양한 결과물들에 대한 것이다.

Perspectives always pervade one's view on a certain phenomenon. Innumerable physical or abstract value has clear a distinction between its back and front and seems to be established as it should be, despite the fact that it is made in a way that is never out of necessity. I have doubt about such vertical structure and I am interested in rearranging value in a horizontal manner. I am working on a series of works where I deconstruct and rearrange a completed structure, find a pattern while stacking blocks that are made arbitrarily and then use the pattern as a rule for a new combination, revive once again the abandoned and disappearing value by changing the relationship between meaning and form of language, or make a three dimensional object flat by eliminating perspective and obscu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ront and back. Attitude reflects a perspective. When I create my work, I employ a number of experiments and attempts at the same time. Some of them are completed in accordance with the original thought, and others clash with another part to become products that are different from the original intention. Sometimes, things that are thought of as byproducts happen to be bound together, presenting their existence. Different groups of my works are not connected in straight lines. Rather, they are arranged in a way similar to that of a map (as reason and result, past and present, important and unimportant thing). After all, whatever way one takes, he is led to everywhere. Most of my works are about the diverse products of such horizontal point of view and attitude.



**표본공간**  
2012, 박스에 인쇄, 가변설치

**Sample Space**  
2012, Print on paper box, Dimensions variable

# 김지은

KIM, Ji Eun

본인의 작업은 외부자도 거주민도 아닌 중간자적 입장에서 거주 환경을 경험하고 관찰하면서 나무의 나이테처럼 공간에 새겨진 역사와 이야기들을 찾아가는 것이다. '답사'와 '리서치'를 병행하여 미디어에 의해 매개된 경험을 넘어서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공간이 어떻게 구축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일상공간에 대한 관심은 도시공간이 수많은 법규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서 시작되었고 환경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라는 측면을 성찰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다. 타자의 눈이 아니라 세계도시인의 한 사람으로서 세계를 이해하고자 사회학자나 인류학자와 같은 태도로 과거와 미래가 얽혀있는 현재의 이슈를 다루는 본인의 작업은 항상 거기에 있어서 눈여겨보거나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던 '일상의(비)기념비'를 찾아가는 여정이다.



**진개덤프**  
2011, 시트지, 280x580cm

**Dumpster Truck**  
2011, Contact paper, 280x580cm

김지은은 서울대 서양화과와 동대학원 및 크랜브룩 아카데미 오브 아트, 스코히건 회화 조각 학교를 졸업하였다. 인사미술공간에서 《제도화된 풍경(2005)》, 브레인 팩토리 《계획된 진부화(2010)》, 대안공간 루프 《소라게 살이(2011)》, 갤러리 압생트 《어떤 망루(2012)》 등의 개인전을 열었고 미국, 대만, 한국에서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삼성미술관 리움 《아트 스펙트럼 2012(2012)》, Espace Louis Vuitton Hong Kong 《WOMAD Code(2012)》, 서울시립미술관 《City\_net Asia 2007(2007)》 등 다수의 기획전에서 참여하였다.

Ji Eun Kim received her BFA and MFA in Painting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She also graduated from Cranbrook Academy of Art and participated in the residency program of Skowhegan School of Painting and Sculpture. She had a number of solo exhibitions that include *Law-full Landscape*(2005) at Insa Art Space, *Planned Obsolescence* (2010) at Brain Factory, Hermit Crabism(2011) at Alternative Space LOOP and *Some Watchtower*(2012) at Gallery Absinthe. Her group exhibitions include *City\_net Asia*(2007) at Seoul Museum of Art, *Art Spectrum 2012* at Samsung Museum of Art, LEEUM and *WOMAD Code*(2012) at Espace Louise Vuitton Hong Kong. She has also participated in a number of residency programs in the USA, Taiwan and Korea.

My work is a way of finding histories and stories that are carved into spaces like an annual ring of a tree. It is done as I experience and observe the living environment in a position of a person in the middle who is not a resident nor an outsider. By doing 'visits' and 'research' together, I intend to go beyond the limited experience mediated through media, and take a look at how our living space is constructed. Such interest in the everyday space began with are a lization that the urban space is created and regulated by countless laws and regulations. It is then developed to the direction of reflecting on an aspect of the social system that affects the formation of environment. To understand the world not with an eye of an outsider but of a global citizen, I deal with the current issue in which the past and the future are mingled with each other. With an attitude similar to that of a sociologist or an anthropologist, my work is a journey towards the discovery of the '(non) monument of everyday life' that has not been observed or well thought of since it had been there all the time.



**드림하우스**  
2009, 캔버스에 유채, 타일용시멘트, 152x203cm

**Dream House**  
2009, Oil, grout on canvas, 152x203cm



**계획된 진부화**  
2009, 캔버스에 유채, 라텍스 페인트, 상자, 판지, 색지, 152x178cm

**Planned Obsolescence**  
2009, Oil, latex paint, cardboard, boxes and shims on canvas, 152x178cm

# 김태균

KIM, Tae-Kyun

나는 현대 사회의 사회문화적 현상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다.

사회구성원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소통의 가능성을 탐구하고 개인과 사회의 다양한 동시대적 담론에 대해 시각언어로 풀어 내려 한다.

도시공간에 대한 인문학적, 사회학적 분석과 비교를 통해 재현된 이미지와 현상들을 미술의 영역으로 끌어들이 시각예술의 소통과 담론들을 제시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알레고리들을 작품에서 보여주고 있다.

모순적이고도 모호한 현대사회의 자가당착적인 정치, 사회, 문화 현상들을 은유와 냉소의 시각으로 재해석하여 다양한 매체들로 이루어지는 시각예술의 형태로 재현 한다.



**Stuttgart**  
2010, 카펫, 700x700cm | **Stuttgart**  
2010, Carpet, 700x700cm

김태균은 독일 슈투트가르트 국립 조형예술대학을 졸업하고 현지에서 2회의 초대 개인전을 가졌다. 독일과 한국에서 다양한 기획전시회 초대 되었고 2012년에는 경기창작센터 입주작가로 활동하며 《123프로젝트》 기획과 전시에 참여하였다. 현재 커뮤니티 스페이스 리트머스 운영작가로 활동 중이다.

Tae-Kyun Kim graduated from Stuttgart State Academy of Art and Design and was invited for two solo exhibitions in Germany. He has participated in a number of curated exhibitions both in Korea and Germany. In 2012, he was an artist in residence at Gyeonggi Creation Center and participated in the organization and presentation of *123 Project*. He is currently working with Community Space Litmus.

I am creating my works with an interest in socio-cultural phenomena of the modern society.

I would like to seek the possibility of communications in the relationships among members of society, and to describe the contemporary discourses of individuals and society with visual language.

By introducing images and phenomena, represented by humanistic and sociological analysis and comparison of urban spaces, to the field of arts, I would like to suggest communications and discourses of visual arts, and to present diverse allegories generated in this process.



**G10**  
2009, LEDs, MDF, 안개장치,  
400x400cm 이내 설치

**G10**  
2009, LEDs, MDF, fog equipment,  
400x400cm

# 김효숙

KIM, Hyo-Suk

건축현장이 갖는 과도기적, 불안정적인 특성을 통해 현대인의 심리적 불안 증후를 표현하고 있다. 유년시절부터 잦은 이사를 경험하면서 건축현장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 회화적 출발을 이루었다. 집은 온전한 형태를 갖추고 있기 보다는 허물어지고 해체되어 무중력 상태의 파편들처럼 보이기도 하고 유기체처럼 자유롭게 부유하는 듯이 묘사되어 있는데 이는 아노미 상태의 심리, 관계와 관계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욕망의 분출과 같은 다양한 내면의 표상들을 상징하는 듯하다. 또한 모자로 얼굴을 가린 익명의 사람들은 무채색으로 주춤거리거나 서성이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 통념과 구조 속에서 자신의 컬러, 정체성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들에 대한 비유라고 하겠다.



**재현된 무대 I**  
2010, 캔버스에 유채, 아크릴, 181x223cm

**The Reenacted Stage I**  
2010, Oil, acrylic on canvas, 181x223cm

김효숙은 용인대학교 서양화와 및 동대학원 서양화과를 졸업하였다. 2010년 송암문화재단 신진작가로 선정되어 OCI미술관에서 《부유하는 나의 도시》이라는 타이틀로 개인전을 가졌다. 2012년에는 인천아트 플랫폼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 한바있다.

Hyo-suk Kim received her BFA and MFA from the Department of Painting at Yongin University. In 2010, Kim was selected as OCI Young Creatives by Songam Foundation and had a solo exhibition titled *My Floating City* at OCI Museum. In 2012, she was an artist in residence at Incheon Art Platform.

I represent human psychological anxiety through a construction site's transitional, unstable traits. The departure point of my painting is concern for construction sites I saw as a child, undergoing frequent moves. In my work, a house demolished looks like fragments in a gravity-free state, or appears floating like some organism. One scene symbolizes the psychological state of anomie, or eruption of desire. Anonymous people hiding their faces under caps of achromatic colors appear hesitant and wandering. They are metaphors for beings without color or identity in a social convention of stereotypes.



**부유하는 나의 도시-좌**  
2010, 캔버스에 유채, 아크릴, 227x181cm

**My Floating City-Left**  
2010, Oil, acrylic on canvas, 227x181cm

박정기는 영남대학교 동양화과와 동 대학원 그리고 독일 뮌스터 쿤스트아카데미(설치조각)를 졸업하였다. 설치, 퍼포먼스, 프로젝트 등 다양한 매체와 여러 장르, 복합적인 형태의 예술을 지향하며 실험하고 있다.

특히 독일에서 루어(루르)공업지대 엠셔강 주위의 도시를 중심으로 도시환경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인 <엠셔 쿤스트 루어 2010> 외 많은 프로젝트 프로그램과 전시에 참여하였다.

Chung-Ki Park received his BFA and MFA from the Department of Oriental Painting and studied sculpture at the Academy of Fine Arts Münster. With adverse artistic background, he encompasses a wide range of media and genres such as installation, performance and project-based work with an aim to create art in a complex form. Kim has especially participated in a number of projects and exhibitions in Germany, including *Emscher Kunst Ruhr 2010*, a project to reactivate the urban environment and local economy around cities along the Emscher River in the Ruhr area.

# 박정기

PARK, Chung-Ki

프로젝트와 설치작업, 퍼포먼스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주로 공간과 건축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소리과 빛 그리고 반복적인 물체나 인체의 움직임을 통해 비논리적인 유머와 다소 명상적인 분위기의 작업을 진행해왔으며, 퍼포먼스 작업에서는 고요함과 침묵, 그리고 그것을 깨뜨리는 짧고 단순한 움직임을 통해 조용하지만 강렬한 인상이 마치 선의 공간이나 선문답처럼 강한 의심을 자아내는 행위들로 채워져 있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작업은 창의적 결과물로서 작품자체 보다는 이것을 매개로 창의적 순간에 대한 직관적이며 순수한 체험을 중요시하는 작업 경향을 가지고 있다.

I have been creating works that employ various media such as installation and performance, presenting illogical humor and a rather meditative atmosphere through sound, light and repetitive movements of objects or human bodies. It was mainly based on my interest in space and architecture. My performance pieces are filled with actions that draw heavy doubts, which resemble Kōan in Zen Buddhism with a quite yet strong impression that comes from the stillness and silence along with a simple movement that breaks them.

My work up until now is a creative outcome, which puts more weight on the intuitive and pure experience mediated from the work of art than on the work itself.



어떻게 죽은 보이스에게 그림을 설명하는가  
2010, 잔디, 왁스 피규어, 토끼, 가변설치

How to Explain Pictures to a Dead Beuys  
2010, Grass, wax figure, rabbit, Dimensions variable



**Museum for Museum**  
2010, 나무, 플렉시글라스,  
조명, 비닐, 280x600x1100cm

**Museum for Museum**  
2010, Wood, plexiglass, light,  
vinyl, 280x600x1100cm



**등대**  
2010, 플렉시글라스,  
1500x400x400cm

**The Lighthouse**  
2010, Plexiglass,  
1500x400x400cm

# 심래정

SIM, Raejung

요즘 층간소음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윗집 아랫집 옆집 할 것 없이 종일 벽을 부수고 때리고 한다. 소음을 견딜 수 없어 항의라도 할라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조용해진다. 이상할 정도로 상대방은 나의 움직임을 알아챈다. 다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자리에 눕는다. 그런 나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 망치질을 일삼는다.

이웃 간에 소통은 서로의 안부를 묻기보다는 소음과 같은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주며 “나 살아있어요”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다. 지난여름 뉴스에서는 혼자 사는 50대 남성이 죽은 지 석달 만에 발견됐는데 발견된 이유가 엄청난 악취 때문에 옆집의 신고로 그의 주검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내 작업은 누구나 그러하듯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렇다보니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장기와 인체에 대해 관심이 생겨났으며 그것과 관련된 법의학, 연쇄살인, 해부학 등에 집중하게 되었다. 나는 인체가 스트레스로 인해 물리적으로 변형되고 변형된 인체 속을 헤집고 다니는 불편함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약 2010, 종이에 잉크, 21x29.7cm | Drugs 2010, Ink on paper, 21x29.7cm

심래정은 2008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형예술과를 졸업하고 2010년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2006년에는 소마미술관 소마드로잉센터 아카이브1기 등록작가로 선정되었으며 2007년부터 현재까지 갤러리 2에서 《음?》, 성곡미술관 《언어놀이》, 테이크아웃드로잉 《키오스크쿠키잉》, GYM project 《1+1》, 공간해밀톤 《침묵이 있다면》, 금호미술관 《doing》 등에 참여했다.

Raejung Sim received her BFA and MFA from the Department of Fine Art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In 2006, she was selected as one of the first artists to be registered to the archive of SOMA Drawing Center in Seoul. From 2007, she has participated in a number of exhibitions that include *Um?*(2010) at Gallery 2, *Linguistic Morphology: Art in Context*(2010) at Sungkok Art Museum, *kiosk cooki-ing*(2010) at Takeout Drawing, *1+1*(2010) at GYM project, *Youthfulness*(2011) at Space Hamilton and *doing*(2012) at Kumho Museum of Art.

Recently, I have been extremely stressed out by the noise between floors at my flat. Everyone upstairs, downstairs and in the house next door smashes and hits the wall all the day. When I am about to say something about it, they become so quite as if nothing happened. The others always detect my movement in some strange ways.. Then I lay myself down to take a rest. And they pound the walls with hammers as if to ridicule me.

It seems that the communication between neighbors is not done with exchanging greetings; people seem to send messages of saying “I’m alive” by stressing the others with noise. In a news report that I watched last summer, a man in his 50s was discovered dead in his flat, 3 months after he died. It was the bad smell that made his neighbor call the police, leading the discovery of his body.

As all the others do, my work departs from the relationship between people. It naturally led me to take interest in organs of the human body and the body itself, which made me concentrate on forensic medicine, serial killing, anatomy and so on. Currently, I’m creating a few stories about the physical transformation of human body by stress and the uneasiness of moving through such body.



지지 2013, 종이에 잉크, 21x29.7cm | GG 2013, Ink on paper, 21x29.7cm

# 애나한

Anna Han

많은 장소를 옮겨 다니며 살아온 나에게 새로운 공간은 불안감보다 설렘을 준다. 주어진 새 공간을 내 공간으로 만드는 과정은 유목민적 내 삶의 한 과정이다. 나의 작업에 있어 선, 면, 색을 이용한 조형적 언어와 시트지, 실사프린트, 천, 라이트 등은 주어진 공간에서 받은 영감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들이 된다. 또한 '벽'이라는 요소 역시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의 개념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적극적으로 수용되고 있다. 특히 벽은 주로 사다리꼴 형태의 반복적 이미지로 상징화되어 나타난다. 공간이라 경험되는 장소는 경험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는 안도 다다오(Ando Tadao, 1941-)의 말처럼 공간에 대한 또 다른 경험을 관객에게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Blue Under Smashing April Nostalgia**  
2012, 천, 실사, 시트지, 실, 600x331cm



**Blue Under Smashing April Nostalgia**  
2012, Fabric, printed vinyl, thread, 600x331cm

애나한은 미국 프랫인스티튜트와 크랜브룩에서 회화를 전공 하였다. 2009년 뉴욕의 플럭스팩토리에에서의 개인전 《Euclidean Space》 이후 한국에서 3번의 개인전을 가졌다. 작가의 많은 이동으로서 경험한 장소와 공간의 관심으로 회화와 설치를 선보인다. 관객은 평면적 조형요소 공간에서 어떻게 재현되고 경험되는지를 공간 속 우리 자신의 신체로서 느낀다. 2012년 부산비엔날레 특별전에 참여하였고, 같은 해 스킨레지던시에 참여하였다.

Anna Han studied Painting at Pratt Institute and Cranbrook Academy of Art. After her solo exhibition at Flux Factory Residency in New York, she had 3 solo exhibitions in Korea. In 2012, she participated in the special exhibition of Busan Biennale and the Skowhegan School of Painting & Sculpture, a nine-week residency program for visual artists. Han presents painting and installation that come from her interest in place and space experienced from her frequent migration. Viewers feel how flat formative elements are represented and experienced in space through their own bodies.

Despite my history of moving around to new places, a new place doesn't give me a fear; rather it stimulates me. Making my own place in a new setting is an ongoing process of my nomadic life. This process is also coming through in my work. The visual language of geometry by line, plane, and color; also use of vinyl, inkjet prints, fabric, and lights become important elements to express the inspiration of the pre-existing space. The 'wall'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idea of interior and exterior which defines space and place against void. Especially, the wall is represented in my work by the repetition of trapezoid shape. The reinterpreted spatial installation works in a given space which leads the audience into their own experience within the space, like Tadao Ando mentioned, the place where it experiences as a space can only be understood by experiencing it.



**AgentOrange**  
2012, 프로젝터, 레드 할로겐, 줄, 페인트, 펠트, 형광등, 거울, 738x815x1814cm

**AgentOrange**  
2012, Projector, red halogen, string, wall paint, felt, fluorescent lights, wood, circle mirror, 738x815x1814cm



**점심을 먹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나**  
2012, 나무, 모터, 철, 실,  
10x20x15cm

**Where they go who ate the lunch**  
2012, Wood, motor, steel, string,  
10x20x15cm

## 양정욱

YANG, Jung-Uk

나의 작업은 일상의 부분들을 관찰하고 그것에서 작은 삶의 원리와 깨달음을 발견하며 이야기하는 방식에 있다. 오랜 시간 피해야하고 쫓겨야했던 삶의 연속이었다. 그 안에서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유희는 일상들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가만히 일상의 작은 사건들을 바라보면 그것에는 이치가 있고 깨달음이 있다. 나는 이런 사건들을 수집하며 현재와 미래의 삶에 대한 해답과 유희를 찾고 함께 나누고자 한다. 수많은 일상들은 행복과 슬픔의 근원들을 깊게 숨기고 있다. 따라서 평범한 일상이 불거리가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나는 이것들을 이야기할 방식으로 어설피 정성스러움을 택했다. 그리고 움직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감성과 시각적 효용성을 생각한다. 이러한 방식은 일상의 사건들이 나를 거치면서 지니게 된, 본능적 살아남기일 수도 있다.

일상적인 이야기가 거창하게 포장되고 표현되는 것 일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일상에는 거창함이 있고 이것을 드러나게 하는 광고적 접근은 일부의 과장을 수용한다. 일상의 이야기들을 수집하는 것과 현대의 많은 불거리 중에 하나로 드러나게 하는 방법의 모색은 나에게도 언제나 즐거운 숙제다. 하지만 속제의 결과물을 눈에 띄고 사유하는 것은 결국 각자의 마음이다.

양정욱은 2011년 경원대 조소과를 졸업하였다. 졸업 후 갤러리현대, 김중영미술관, 쿤스트독에서 신진작가 그룹전을 가졌다. 2012년 프로젝트스페이스 사루비아다방 기획전 《사이의 변칙》을 시작으로 움직임에 관한 작업들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2013년 현재는 국립현대미술관 고양창작스튜디오에 입주해 첫 번째 개인전을 준비 중에 있다.

Jung-Uk Yang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of Sculpture at Kyungwon University. After graduation, he participated group exhibitions at Gallery Hyundai, Kim Chong Young Museum and KunstDoc Gallery. Upon his participation in *Variations* at Project Space SARUBIA in 2012, he started creating works that revolve around the theme of movement. Currently, he is preparing for his first solo exhibition.

My work centers around the way I observe parts of everyday life, find petty principles of life and illumination, and tell what I have discovered. Indeed, I had to continue running away and being chased for a long time in my life. The best pastime that I could do in such a life was to gaze upon my daily routine. Looking at small events in our everyday lives, one sees that there are principles and illumination. By collecting those events, I intend to find and share the answer to the life of the present and future along with the joy of such actions. Our countless ordinary lives are hiding the origins of happiness and sadness deep inside within them. It is thus difficult for an ordinary daily routine to get attention from many people who already have a lot of things to see. So, I chose a coarse earnestness as a way to tell those things. And I consider the specific sensitivity and visual value of such movement. Such a method might be an instinctive way of survival, which has come to remain as I went through events in my daily life.

It might be that an ordinary story is depicted and expressed as something great in my work. But there certainly is greatness in our everyday lives, and the advertisement approach that exposes such greatness permits some exaggeration. Collecting stories of everyday lives and finding a way to expose them as one of the many spectacles of our daily routine always are an entertaining subject to me. But to watch it and to think about it is upon the choice of each of us after all.

**모든 일에는 대부분 방법이 있고 순서가 있다**  
2012, 나무, 모터, 철, 실, 250x80x80cm

**There are almost way and sequence in all thing**  
2012, Wood, motor, steel, string, 250x80x80cm





**가장 빛나는 별**  
2012, 캔버스에 과슈, 130.3x193.9cm

**The most shining Star**  
2012, Gouache on canvas, 130.3x193.9cm

# 이우성

LEE, Woosung

## 개별자들의 풍경

이 복잡하고 치열한 삶 속에서 눈물과 웃음은 같은 단어다. '울다 웃으면 엉덩이에 털이 난다'라는 말이 있다. 즉 이러한 상충된 것의 만남과 반복을 통해서 결국은 성장한다는 뜻이다. 인생의 모습을 담은 이 말처럼 눈물과 웃음이 만나 무언가 또 다른 웃음과 즐거움을 만들어내는 지점에 내 작업이 놓이길 원한다.

나는 평면 위에 이미지들이 중첩 되었을 때 이미지들이 실제 가진 의미와는 다르게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지점에 관심이 있다. 무작위로 수집되고 변형되어 만들어진 군상은 나의 침묵을 담은 발언자가 되고, 불을 지르고 도망가는 방화범들의 모습은 내부적인 갈등이 되며, 물고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은 나의 욕망이 된다. 결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행복들, 사고들, 사건들의 기록을 통해서 나의 이야기를 이미지화시켜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담긴 한 개인의 생각과 반성의 기록들이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가까이에서 보았을 때는 내적갈등들이 보이지만 멀리서 거리를 두고 바라보았을 때는 콜라주 되고 집합된 풍경으로 그려지길 원한다.

관객들로 하여금 분열되고 혼재된 상황을 담은 그림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젊은 세대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란다.

이우성은 홍익대학교 회화과와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조형예술과 전문사 과정을 졸업했다. 2012년 갤러리175 《불 불 불》 개인전을 시작으로 서교예술실험센터와 흥은 창작센터 지하창고 두 곳에서 《우리가 쌓아 올린 탑》이라는 제목으로 2 번째 개인전을 가졌다. 2013년에는 송암문화재단 신진작가로 선정되어 OCI미술관에서 개인전을 가질 예정이다. 이 외에도 그동안 서울문화재단 흥은예술창작센터 레지던시 및 스페이스빌 《사랑방 손님과 배다리 2009》프로젝트에 참여했고, 2011년에는 쿤스트할레 광주 《Young & Upcoming》단체전을 가졌으며 같은 해 프린지페스티벌 《사부작 사부작-두 개의 움직이는 겨울》 공연을 공동으로 진행했다. 2012년에는 서대문 재활용센터에서 《세탁기장식장》, 2013년 쿤스트독 《우문현답》 등 다수 단체전에 참여했다.

Woosung Lee graduated from Hongik University with a BFA in Painting and later received an MFA from the Department of Fine Arts at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In 2012, he had his first solo exhibition *Bul Bul Bul* at 175 Gallery, which was followed by another solo exhibition *The top we built up* at Seoul Art Space Seogyo and Seoul Art Space Hongeun in the same year. In addition to the solo exhibitions, he has participated in a number of group exhibitions, including *Young & Upcoming*(2011) at Kunsthalle Gwangju, *A Cabinet in the Washing Machine*(2012) at Seodaemun-gu Recycling Center and *A Wise Answer to a Silly Question* (2013) at KunstDoc Gallery. He has also participated in Seoul Fringe Festival in 2011 with a performance titled *Sabujak Sabujak-Two Moving Winters*. Selected as an artist of 2013 OCI Young Creatives program, he is planning to hold a solo exhibition at OCI Museum this year.

## Scene of Personnel

Tears and laugh--these conflicted two words are the same in this fierce and complex modern life style. There is a phrase in Korea, "crying and laughing by turns will make hairs grow on the butt." This means we can grow up by repeated experience of conflicted feelings. Similar to this phrase, I would like to position my art work in the place where tears and laugh cross over each other and create new humorous and pleasant moment. My work has been evolved since I understood the importance and possibility of humors in arts.

I am interested in the cross-over where images are overlapped and another new story is created. Group of images which are created from random collection, overlapping, and modification has become the speaker who can deliver my silence, the fire igniters that reflect the confliction of my emotions, and the people who are holding fishes represent my desires. My work creates another set of new stories from what is happening every day and I want to dedicate my work to our daily lives. Just like collage, I want to create a new story comprised of many different subset of stories which can be seen only from the distance; and want the audiences to find themselves on the canvas that reflects somewhat broken and complicated but realistic stories.



**붉은 방**  
2011, 캔버스에 과슈, 103.3x193.9cm

**The red room**  
2011, Gouache on canvas, 103.3x193.9cm

# 장우진

## CHANG, Woojin

나의 작업들은 학교, 미술계, 도시, 사회 등 상위의 구조라는 현실 안에서의 나의 위치에 대한 생각들에서 출발한다. 다만 나 자신을 내세우고 드러내기보다 최대한 객관화된 시선을 취하고자 한다. 나는 다양한 각도에서 사회와 개인이 어떻게 얽혀 있고 상호 작용을 하는지를 분석하고 바라본다. 구조는 우선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조각들로 분해되었다가 보다 직관적인 형태로 재구성된다.

나의 가장 최근 연작인 <인산인해> 시리즈는 서로를 타넘고 매달리고 혹은 떨어지는 수많은 인간상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풍경이다. 이들 지형은 1929년의 대공황이나 최근 리먼 사태의 주식 그래프를 차용하기도 하고 거대 파도를 묘사한 유명한 일본 판화에서 형태를 가져오기도 한다. 또 다른 지형들은 임의적 규칙에 약간의 의외성을 가미해 얻어진 산물로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열망이 집적되어 만들어내는 형상을 표방한다. 개인들이 이처럼 현실의 전지적인 구조와 흐름 속에 묶여 있는 그림은 얼핏 자조적으로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한편으로 사회의 지형을 빚어내고 유지시켜 나가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임을 상기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누군가는 더 평등하다**  
2008, 목판에 아크릴, 스텐실

**Some are more equal**  
2008, Acrylic on wood plate, stencil

장우진은 서울에서 태어나 스페인과 리비아, 영국 등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 서울대 서양화과를 졸업한 후 수년간 영화 컨셉아트와 매트페인팅 일을 하였다. 2011년 메릴랜드 미술대학 연계전공학과 대학원 과정을 졸업하고 코너 컨템퍼러리에서의 《Academy 2011: More Than One》 전시 등 수 차례 그를 초대전을 가졌으며 Pulse Presents Award를 받았다. 2012년에는 서울 시립미술관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에 입주하였고 갤러리아우에서 개인전 《바람의 화》를 가졌다.

Born in Seoul, Woojin Chang spent his early days in Spain, Libya and the United Kingdom. After graduating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with a BFA in Painting, he worked in the film industry as a concept artist and a matte painting artist for a few years before he decided to pursue his artistic career again. In 2011, he received his MFA in Interdisciplinary Art from Maryland Institute College of Art. Upon his graduation, he was invited to an exhibition *Academy 2011: More Than One* and was also awarded the PULSE Presents Award. In 2012, he was an artist in residence at Nanji Art Studio and had his first solo exhibition *shapes of desire* at Gallery Now.

My work takes off from where I stand within the reality of social structure, whether it be school, the art world, cities etc. But while the theme itself may be personal, I take effort to take as much of an objective view in my work as possible. I try analyzing from different angles how an individual and the society intermingle and interact. The structures are divided down into simpler elements, and reconstructed into more intuitive forms. My latest works, the *humanscape* series, are landscapes comprised of thousands of tiny human figures that are climbing, hanging, and falling, fashioning in the process the scape of their own existence. Some of these configurations are from stock graphs of the great depression in 1929 or the recent Lehman Brothers crisis, while others derive their form from old Japanese prints depicting great waves. Still others are purely imaginative, the resulting topography allegedly embodying the aspirations of the countless individuals. That we are bound within this omnipresent flow of reality may seem like a pessimistic view. However, it is also a reminder that it is no other than ourselves that drive, mold, and hold together this social landscape.



**인산인해 (설치 이미지)**  
2012, 피그먼트프린트, 150x675cm

**Humanscape (Installation shot)**  
2012, Pigment print, 150x675cm



**인산인해1(부분 이미지)**  
2012, 피그먼트프린트, 150x225cm

**Humanscape(Closeup)**  
2012, Pigment print, 150x225cm



**강**  
2009, 단채널 영상, 3분10초  
**River**  
2009, Single channel video, 3' 10"

조소희는 동덕여대 회화과와 파리 1 대학 조형예술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마쳤다. 한국과 프랑스에서 《지영이의 장롱》, 《두개의 방》에 이어《여행》, 《사(絲)적 인상》등 8회의 개인전을 열었으며 2006년 부산비엔날레에 출품했다. 프랑스와 스페인에서 활동하며 연이어 전시한 《Du fil qui file》시리즈를 통해 흐르는 시간을 축적하는 '진행형 작업형태'를 발전시키는 한편 다양한 퍼포먼스와 영상을 제작했다. 벨기에 La Rausche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2011년에는 노마딕 레지던스 프로그램(바이칼 호수)에 참여했다.

Sohee Cho received her BFA in Painting from Dongduk Women's University and later acquired an MA, DEA and Ph.D. in Plastic Arts from University of Panthéon-Sorbonne in Paris. She had her first solo exhibition *Jiyoung's Armoire*(1996) at Keumsan Gallery, which was followed by *Deux chambres à côté*(2005) at Brain Factory and *voyage*(2006) at Gallery Hyundai's Window Gallery. In 2006, she also participated in Busan Biennale. Since then, she developed the method of 'work in progress' with *Du fil qui file* series, which was presented a number of times in France and Spain, along with a variety of performances and video works. She participated in the 2011 Nomadic Artist Residency Program and produced an outdoor performance piece at Lake Baikal in Russia.

## 조소희

CHO, Sohee

내 작품은 아주 가볍다. 동시에 무겁다.

작업의 재료들은 모두 물리적으로 가볍기도 하거니와 기능과 가치면에서도 그렇다. 두루마리 휴지, 식당용 냅킨, 포장용 습지, 구조용 비닐, 실 등이 그것이다. 때때로 금속이나 나무 등의 육중한 재료들을 차용할 때도 있지만, 같은 범위 안에서 가장 수습하고 얇고 가벼운 형태의 사물을 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들이 단순히 가볍게만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시간의 흐름을 염두에 둔 '반복'과 '집적'이라는 작업 형태가 그 무거운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존재의 무게가 아이러니하게 한없는 가벼움에 기대어 있다고 상상한다. 왜냐하면 삶이란 늘 '의문형'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변화하고 흐르는 가히 흔들림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의 작업은 이 '중간 상태'의 지속성을 지향한다. 예컨대 두루마리 휴지 위에 매일매일 텍스트를 타이핑하거나, 재봉실로 얇은 리본을 끊임없이 짜 나가는 평생에 걸친 프로젝트가 그런 류의 표현들이다. 이는 존재와 사물의 의미를 지속성과 미세한 증식의 가벼운 아름다움을 통해 찾고자 하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예술'이나 '인간' 등의 형이상학적 주제에 대해서도 그 의미의 무거움을 역설적으로 섬세하고 가벼운 방식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가령 작품 〈산, 강〉에서 거대한 메타포인 자연 위에 올라서서 풍선을 불어 날리거나, 논문을 찢어 종이베로 띄워 보내고, 인간의 반복적인 행위를 표현하는 〈네 사람〉같은 퍼포먼스들은 그 행위가 사뭇 진지하고 엄숙해 보이지만 실은 무게를 잃은 듯한 조용하고도 시적인 움직임으로만 보인다. 어쨌든 이런 일련의 실험들을 통해 나는 어쩌면 피할 수 없는 무거운 삶을 등에 지고도 한없이 가볍게 견고자 하는 존재의 저 밑바닥에 간직한 아련한 꿈에 대해 생각한다.

My work is very light. Yet, it is heavy.

All the materials for my work are light not only in a physical sense but also in their function and value. They include toilet paper, napkin, tissue paper, vinyl for construction purpose and thread. Though I sometimes use heavy materials such as metal or wood, I mostly use the most casual, thin and light objects within the range of the same material. The reason my work does not simply feel light might be because of the fact that the method of 'repetition' and 'accumulation' takes a considerable part of my work with a consideration of the flow of time.

I imagine that the weight of existence is ironically depending upon the lightness that is endless. It is because life is always in 'a form of question' that is never completed and ever changing and flowing, being a continuum of wobbling movement. For that reason, my work primarily aims to achieve the continuance of such 'intermediate state'. Lifelong projects such as typing texts on a toilet paper roll every day or continuously knitting a thin ribbon with sewing thread are expressions of such thoughts. This can be regarded as an effort to find the meaning of existence and object through continuance and the light beauty of minute multiplication. On metaphysical subjects such as 'art' or 'human,' I intend to express the heaviness of their meaning by a delicate and light way. In *Mountain and River*, I stand on top of the enormous metaphor of nature, blow a balloon away, tear academic papers down and float them on a paper boat. In *4 Persons*, I express the repetitive human behavior. These performances look quite serious and solemn, but they are in fact seen simply as a quiet and poetic movement that has lost its weight. In any case, through this series of experiments, I think about the faint dream kept deep inside of an existence, which tries to walk endlessly and lightly despite its burden that might be unavoidable.



**리스트비안카**  
2012, 단채널 영상, 3분30초  
**Listvyanka**  
2012, Single channel video, 3' 30"



**편지, 진행형프로젝트**  
2003~, 크리넥스, 종이, 실크천, 아사천, 거즈, 50x42cm(납개 액자), 가변설치

**비과학적인 촛불의 과학**  
2012, 나무, 전기장치, 양초, 51x34.5cm

**Letters, work in progress**  
2003~, Tissue, paper, silk fabrics, cotton textiles, gauze, table, chair, 50x42cm(each piece), Dimensions variable

**The Unscientific Opus of Burning Candle**  
2012, Wood, electronic device, candle, 51x34.5cm

최종희는 서울대학 및 동대학원 조 소과를 졸업하였다. 2010년 무이 갤러리의 《Mirror in the mirror》개 인전을 시작으로 2010년 서울시 립미술관 'SeMA신진작가전시지 원'에 선정되어 공근해갤러리에서 《Project aRan》전과 2011년 콘스트 독갤러리에서 《On Certainty》전 등 4회의 개인전을 하였다. 2012년 부 산비엔날레 특별전, 여수엑스포 SK 기업관 전시 등 다수의 기획전에 참 여하였다.

Jong-Hee Choi graduated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with a BFA and an MFA in Sculpture. From his first solo exhibition *Mirror in the mirror*(2010) at Mui Gallery, Choi has since held 4 solo exhibitions that include *Project aRan*(2010) at Gallery K.O.N.G and *On Uncertainty*(2011) at KunstDoc Gallery. Among them, *Project aRan* was organized with support from SeMA Grant for Emerging Artist. He has also participated in a number of group exhibitions including the special exhibition of Busan Biennale 2012 and SK Pavilion at EXPO 2012 Yeosu.

# 최종희

CHOI, Jong-Hee

지나간 기억을 떠올리는 것처럼, 어떤 사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그 사물에 내재된 본성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어떤 순간이나 어떤 사건들은 안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런 순간은 종종 나를 어떤 다른 먼곳으로 향하게 한다. 그리하여 '나'라는 존재에 대해 생각하게 하고 나를 둘러싼 '세계'에 대해 다시-생각하게 한다.

나는 작업을 통해 이런 순간을 '또 다시' 만나보고자 한다. 나에게 혹은 우리에게 내재된 혹은 결여된 어떤 본성을 찾아가는 것이 내가 작업을 통해 찾고자하는 사유의 이미지이다.

Similar to remembering the memories of the past, the reason we know a certain object is what it is maybe because we already know its inherent nature. But there are cases where we cannot comprehend certain moments and events although we know them.

Such moments often lead me to face towards some other distant places. As a result, they make me think about 'me' as an existence and the 'world' around me once again.

Through my work, I intend to meet such moments 'once again'. The immanent image that I would like to find through my work is to locate a certain instinct that is inherent or lacking in me or in us.



**거울 속 거울**  
2010, 합성수지, 아크릴거울, 100x100cm

**Mirror in the mirror**  
2010, FRP, acrylic mirror, 100x100cm



**거울 여행**  
2012, 블록, 거울, 인조잔디, 가변설치

**Journey through the mirror**  
2012, Block, mirror, artificial turf, Dimensions variable



**aRan no.1**  
2010, 혼합매체, 가변설치

**aRan no.1**  
2010, Mixed media, Dimensions variable



**인식의 지점**  
2012, 비디오, 혼합매체, 가변설치  
**Point of recognition**  
2012, Video, mixed media, Dimensions variable

## 한경우

HAN, Kyung Woo

모든 것은 항상 변화하며 고정되어 있지 않다. 비교 없이는 사물이나 현상 자체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불가능 하다. 절대적으로 길고 짧음, 크고 작음, 가볍고 무거움 등은 존재하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 해석되어질 뿐이다. 인간은 모르는 것을 본능적으로 두려워한다. 그것이 무엇이든 비교, 분석을 통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틀 안에 놓아야 안심한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것은 곧 ‘아는 것만 본다.’라는 뜻이다. 고로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적어도 우리가 그것을 알기 전까진.

본인의 작업은 사람의 시점과 관점에 대한 연구에서 비롯되어 모든 사실은 상대적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한다. 사람은 평생에 걸쳐 학습되어진 경험을 바탕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같은 사실을 두 명이 이상 바라본다면 두개 이상의 관점이 생겨나고 그것은 절대로 서로 같을 수 없다. 모두가 서로 보고 싶은 사실을 볼 뿐이다. 인간은 세상을 지각하는 많은 방법 중에 많은 부분을 시각에 의존하고 있고 인간의 관점이 구축되는 과정 또한 시각적인 부분의 영향이 가장 크다. 이렇듯 본인의 작업에서 인간의 ‘본다’라는 행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간의 보고 읽는 행위가 얼마나 객관성을 유지하기가 힘든가를 보여주고 현상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그것을 주관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작업을 통해 말한다.

한경우는 서울대학교 조소과를 졸업했고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에서 뉴미디어 석사를 받았다. 인간의 관점을 카메라의 시선으로 빚대어 만들어진 그의 작품은 설치, 영상, 사진, 조각 등 다양한 매체로 표현되어진다. 시카고와 뉴욕에서 작업 활동을 시작했으며 2011년에 귀국하여 대안공간 루프에서 개인전을 가졌고 11회 송은 미술대상 대상을 받았다. 삼성 리움 미술관, 서울 시립 미술관, 경기도 미술관 등 국내외 여러 미술관 단체전에 참여했고 현재 고양 창작 스튜디오 입주작가로 있으며 국립현대 미술관, 미술은행, 송은 문화 재단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Kyung Woo Han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of Sculpture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received an MFA in New Media from the 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SAIC). Han's work takes the perspective of camera as that of humans, employing a variety of media including installation, video, photo and sculpture. Started his professional career as an artist in Chicago and New York, he came back to Korea in 2011. In the same year, he had a solo exhibition at Alternative Space Loop and was awarded the 11<sup>th</sup> Songeun Art Award. He has participated in a number of group exhibitions held at institutions both in Korea and overseas, including Leeum, Samsung Museum of Art, Seoul Museum of Art and Gyeonggi Museum of Art. Several of his works are in the collections of the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Korea, Art Bank, Korea and Songeun Art Foundation.

Everything is ever changing and not fixed. It is impossible to define an object or a phenomenon itself without any comparison. An absolute standard of length, size or weight does not exist: it is interpreted upon given situations. Humans have an instinctive fear against the unknown. Whatever the unknown subject is, we feel certain when we put it in a comprehensible frame through comparison and analysis. The expression ‘one can see as much as he knows’ means that ‘one can only see what he knows’. Things that are invisible thus do not exist, at least until we come to know about them.

My work is derived from a study of human perspective and human point of view, departing from the idea that every fact is relative. Humans see the world through their own experience that they have learnt whole through their lives. If more than two people see the same fact, there will be more than two perspectives that can never be the same. Everyone sees the fact that he wants to see. Among many ways for perceiving the world, humans depend a large part on the visual sensation, which also affects most in the process of constructing a human perspective. The human act of ‘seeing’ thus plays a very important role in my work. Through these, I show how difficult it is to maintain objectivity in seeing and reading as well as the reality where one cannot see the truth of a phenomenon but interpret it in a subjective manner.



**레벨 테이블**  
2012, 나무, 카메라, 모니터, 자석, 80x200x70cm(테이블 크기)  
**Level Table**  
2012, Wood, surveillance camera, monitor, magnet, 80x200x70cm(table size)



**Equilibrium**  
2009, 변형캔버스에 아크릴,  
면천, 자석, 철사, 나무,  
143x145x23cm

**Equilibrium**  
2009, Acrylic, cloth,  
magnet, wire and wood on  
transformational canvas,  
143x145x23cm

홍정욱은 홍익대 회화과와 동대학원 회화과를 졸업했다. 그 후 런던대학교 슬레이드 미술대학원에서 회화과를 졸업하였다. 2003년에 존재하지만 시각적으로 느낄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선들을 무용수처럼 표현한 《avi-》, 중력가속도의 법칙을 형상화한 《axis》, coexist, collaboration, cooperation 등 '함께'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의 접두사를 제목으로 한 《co-》, 삼각형, 사각형 이후의 모든 각형의 접미사로 쓰인 《-gon》을 제목으로 한 개인전을 하였다. 런던에서 작업하는 동안 2009년에 영국에서 활동하는 젊은 작가들을 대상으로 한 Bloomberg new contemporaries 과 2010년에 스페인 바르셀로나 국제공모전인 Premi de Pintura Internacional Guasch Coranty를 수상하였다.

Jung-Ouk Hong graduated from Hongik University with a BFA and an MFA in Painting. After his graduation from Hongik University, he moved to London and received an MFA in Painting from Slade School of Fine Art at the University College London. From *ball of line*(2003) where he depicted lines as dancers with things that exist yet cannot be sensed visually, he had a number of solo exhibitions in which he studied specific idea or grammatical element. *avi-*(2005) took the prefix 'avi' to present 'thin and soft' objects, while *axis* (2006) materialized the law of gravitational acceleration. *co-*(2011) took the prefix with a meaning 'together' as its title and *-gon*(2012) employed a suffix that is used in words that describe square shaped figures. During his residence in London, he was awarded the Bloomberg New Contemporaries (2009) and the Premi de Pintura Internacional Guasch Coranty(2010).

## 홍정욱

HONG, Jung-Ouk

'기본basic'이라는 것은 경우에 따라 매우 사소하고 가치 없어 보이기엔 그냥 스쳐지나가는 것이 다반사이다. 하지만 그 중 어떤 것은 조금만 또는 아주 잠시 미비해져도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혼돈을 겪을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어딜 가도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처음에는 중력에 그 다음엔 지금은 일상에서 사용하지만, 전前 시대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0', 현재 숫자 단위의 기본이 되는 십진법 영역에서 굳건히 자기들의 영역을 지키고 있는 십이진법과 같은 것들에 관심을 가졌다.

그 이후에 시視각의 기본이 되는 기본도형(원, 삼각형, 사각형)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처음엔 그것 그 자체의 형태에 관심을 가지고 작업하였지만, 지금은 이것들이 모든 형태의 기본이 되므로, 여러 형태(유기체적이고 비정형화)로 관심이 확장되었고 지금은 보이지만 만질 수 없는 빛에의 형성된 가시적可視的인 형태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는, 그것들 간의 관계 그리고 균형 또한 작업을 표현하는데 관심 있는 분야이다. 또한 이런 관계들은 '모비우스 띠'처럼 서로 보이지는 않더라도 연결고리를 가지고 균형을 맞추는 경우가 많다. 이성적인 부분을 깊게 파고들면 감성의 울림을 표현할 수 있고, 보색대비 안에서도 색의 균형을 발견할 수도 있고, 부드러운 안에서 차가움을 서늘함 안에서 따사로움을 느끼고 표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느껴질 때, 어쩔 이것은 인간에게 묘한 자극을 선물할 수 있다.

Things that are 'basic' are overlooked too often since they seem very trifling and valueless upon different cases. However, some of them might be unable to survive or go through confusion only with a slight change. This led me to take an interest in things that do not change whenever and wherever they are. Gravity was the first subject of my interest, then I moved onto the number 0, which is used in our everyday lives yet was unimaginable in the past, and to the duodecimal system that is keeping its place firmly within the territory of the decimal system which dictates the current numeral system.

After taking an interest in numbers and numeral systems, I am now interested in basic shapes in human vision (circle, triangle and rectangle). I started with an interest in the shapes themselves, but it has expanded into an interest in a variety of (organic and non-stereotypical) forms since the basic shapes are the foundation of every shape. I also have an interest in a visible form built by the light, which can be seen but cannot be touched.

In addition, the relationship and balance among the above things also catch my interest. Similar to a 'Möbius strip', this kind of relationships are balanced with invisible yet mutual links in many cases. One can express the reverberation of emotion if he investigates deeply into the rational part; he can find a color balance in a contrast of complementary colors; he thinks he can feel and express coldness in softness and warmth in coolness. When it is felt without one's consciousness, this might give a delicate stimulus to humans.



**Common**  
2008, 폼엑스, 자석, 투명고무링, 철사, 나무,  
65x130x65cm

**Common**  
2008, Formex, magnet, silicon, wire and wood,  
65x130x65cm

# 쥐즐렌 샤자이

Ghizlène Chajai

나는 내 작업의 접근법에 있어 인체의 형이상학과 현실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그것의 (물리적, 문화적, 사회적, 예술적인) 재현 사이에 존재하는 이중성을 탐구한다.

내가 신체를 위해 창조하는 가면들은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이다. 그런 접근법에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육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부재는 우리를 비현실적인 어떤 것, 시간을 초월한 차원, 공허함과 같은 어떤 것으로 던져 넣는다. 이런 전환에 힘입어 나는 가능성의 공간이 되는 경향이 있는 장면과 연출을 통해 세계를 하나의 극장으로 바라보는 비전을 구축한다. 나의 모든 설치와 사진 작업에서 우리는 기이한 인상, 부조리한 느낌, 이런 부조리한 등장인물을 통해 나타나며 수수께끼로 이어지는 뒤섞임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곧 기원에 대한 수수께끼이다. 이런 작업을 위해 나는 기존의 상징뿐만 아니라 내 상상에서 유래한 요소들을 사용한다.

나는 관객의 상식을 창조하거나 그들을 위해 혼돈을 만들어 낸다. 이미지의 조작에 질문을 던진다. 나는 우리가 덮어버리는, 우리가 감추는, 우리가 가리고 드러내는, 실재와 비실재를, 그러한 양식 속에 있는 깊이를 내가 다루고 있다고 말하기를 좋아한다...

나의 작업에는 또한 자기 성찰이라는 관념과 내부의 모습을 선호하는 의상, 기억이라는 개념이 있다. <à nos corps défendants/reluctantly> 연작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은 (해부학적, 육체적, 기원상의) 혼합과 (문화적, 사회적, 유전적) 이중교배의 개념에서 비롯한다.

이 작업에서, 드로잉은 내가 진행한 조사의 일부로, 내밀한 일기 나 어떤 놀이터와도 같다.

쥐즐렌 샤자이는 스트라스부르에서 거주하며 활동 중인 작가로, 스트라스부르 고등 장식예술 학교 섬유예술학과를 졸업하였다. 그녀는 의상, 사진, 드로잉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며, 이러한 예술 활동의 중심은 의상을 구현하고 동작을 부여하는 데 있다. 그녀의 작업은 신비함과 익숙한 것을 결합하며, 이는 그러한 혼합에 관한 단순한 발언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이미지의 생산에 질문을 던지는 개인적 신화를 통한다. 샤자이의 작업은 2010년 제55회 살롱 드 몽루즈에 공식 후보로 오른 바 있다. 이에 더해 그녀는 스트라스부르 예술과 미술관 친선 협회가 수여하는 테오피일 슈러상을 수상하였다. 2013년 3월, 그녀는 제7회 인터네셔널 아르테 라구나 상 최종 후보로 선정되어 베니스에 있는 아르세날레에서 전시에 참여하였다.

Ghizlène Chajai lives and works in Strasbourg. She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of Art and Textile at the Superior School of Decorative Arts in Strasbourg. She expresses herself through costumes, photography and drawing. The realization of costumes and their activation is central to the artist's practice. It combines mystery and the familiar, in a personal mythology that is not limited to a simple comment on the mix, but rather asks the manufacture of images. Her work was part of the official selection for the 55<sup>th</sup> Salon de Montrouge in 2010. In addition, she was chosen as a recipient of the Théophile Schuler Prize by the Society of Friends of Arts and Museums of Strasbourg. In March 2013, she was nominated as a finalist of the 7<sup>th</sup> International Arte Laguna Prize with an exhibition at the Arsenale di Venezia.



Zoo  
2006, 사진, 가변크기

Zoo  
2006, Photo, Dimensions variable

In my approach, I explore the limits of duality between the metaphysics of body and perception of reality, as well as its representations (physical, cultural, social, artistic...)

The mask I create for the bodies cannot allow an immediate identification. The body as we know it traditionally doesn't exist in such approach. This absence throws us into something unreal, in a timeless dimension, such as a vanity. Thanks to this transformation, I build up a vision of a world, as a drama theater through the scene and staging, which tends to be a space of possibilities. In all of my installations and photography, we can feel a strange impression, a feeling of absurdity, a hybridization that comes through this absurd character and leads to a mystery. The mystery of the origin. I use existing symbols as well as ingredients coming from my imagination.

I refer to the common sense or create confusion for the viewers. I ask the fabrication of the image. I love to say that I am playing with what we cover, what we hide, what we veil and unveil, the real and unreal, the depth in the style...

There is also an idea of an introspection, the costume favours the look on the inside, the memory. In the series *à nos corps défendants/reluctantly*, various characters come from the notion of mixing (anatomic, physical, genetical...) and from the interbreeding (cultural, social, genetic...).

In this work, the drawings are part of my research, such as intimate diaries or such as playgrounds.



장 후에이 밉(1984년 생)은 타이베이 국립 예술 대학교 재학시절부터 작가로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으며, 2006년에는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예술과학 대학원(현재 뉴미디어 아트 학과로 알려져 있음)에 입학했다. 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2009년에는 대만의 젊은 작가에게 주어지는 가장 영예로운 상인 타이베이 예술상을 수상했고, 미술계에서 전도유망한 젊은 작가로 자리매김했다. 그는 2010년에 성공적으로 석사 학위를 마쳤으며 현재 작업에 정진하고 있다.

Chang Huei-Ming (b. 1984) had already begun to stand out while studying in Taipei National University of the Arts. In 2006, he entered its Graduate School of Art and Technology(now known as the Department of New Media Art) to continue his studies. During his schooling in 2009, he received the Taipei Arts Award, which is considered the most prestigious award for Taiwanese young artists. He became a budding young star in the art world. In 2010, he successfully completed his Master's degree. Today he is forging ahead in his promising career.

# 창 휘이 밉

Chang Huei-M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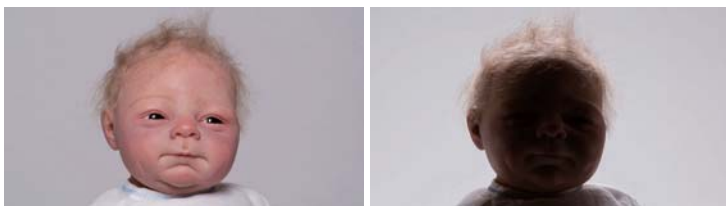


창 휘이 밉이 진행하는 작업의 주제는 거울, 신체, 공간, 속도 사이의 관계를 조사하고 실험하는 것이다. 그의 작업에서 사물에 고속 모터를 설치하는 것은 인식되지 않고 있는 시각적 능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다. 또한 고속 모터로 생기는 진동과 이미지의 흐려짐은 어떻게 움직이는 이미지의 두 가지 속성인 시간과 속도를 재현할지에 대해 관객이 생각해보기를 강조한다. 작가가 만들어내는 진동은 키네틱 아트의 초기작들과는 달리 박자나 리듬, 운동을 재현하려 시도하지 않는다. 그것은 집중력을 잃는 상태로 단순화되며 특별한 시간과 공간 경험을 가져온다. 일상적인 사물에서 비롯한 이런 종류의 경험은 관람객에게 더 많은 환상을 제공한다.

The main subject of Chang Huei-Ming's work is the investigation and experiment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mirrors, images, bodies, space and speed. Installing the high-speed motor on the objects is to revive the ignorant visual ability. Also the vibration and blurring of images caused by the high-speed motor urge the viewers to think about how to represent the time and speed, the two characteristics of moving images. Different from the category of Kinetic Art in early days, the vibration he creates does not try to represent tempos, rhythms or movements. It is simplified to be the status of losing focus and also brings the extraordinary experience of time and speed. This kind of experience just from ordinary objects provides viewers with more illusion.



**Fragment #3** 2012, 단채널 영상, 사운드, 2분 반복 | **Fragment #3** 2012, Single channel video, Sound, 2mins. loop



**Noor and Noor** 2012, 2채널 영상, 사운드, 2분 반복 | **Noor and Noor** 2012, 2 channel video, sound, 2mins. loop

# 필라 마타 듀폰

Pilar Mata Dupont

나는 글이나 사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기억이나 역사를 다시 창조하고 다시 상상하는데 흥미를 두고 있다. 기억/역사가 어떻게 형체를 잃거나 미화되는지를 탐구하는 것이다. 현재 나는 다양한 신화 그리고 내가 여행하면서 만난 사람들이 내게 전해준 기억들이 혼중적으로 섞인 것으로서의 내러티브를 창조하는 것으로 실험 중이며, 영화와 사진을 통해서 이를 진행 중이다. 이것은 원래 존재하는 신화의 위엄은 제거되어 있지만 평범한 기억에 더 짙은 현실과 의미를 주는 새로운 세계 신화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이런 실험들은 이야기하기의 비유와 관계하고 그것을 전복하는 것에 대한 내 관심을 더 넓힌다. 그리고 이것은 식민주의, 국가주의, 군사화된 사회의 효과를 탐구하기 위한 장치로서의 마술적 리얼리즘 장르에 대한 나의 탐구를 다시 시작하게 한다.

필라 마타 듀폰은 2001년 커틴 공과대학 회화과를 졸업하였고 2007년에는 더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공연예술 아카데미에서 음악극 과정을 수료하였다. 그녀는 주로 사진과 영화를 다루는 종합예술가이며, 파리 퐁피두센터, 베를린 예술원, 시드니 현대 미술관, 브리즈번 현대 미술 갤러리 등에서 개인전 및 단체전을 치른 바 있다. 한편 2010년에는 동료인 타린 길과 영화 <Gymnasium>으로 바실 셀러스 예술상을 받는 영예를 누리기도 하였다. 현재 전 세계에서 프로젝트를 발전시켜나가는 2년간의 연구조사 여행을 수행 중이며, 이 기간 중 체류국가는 네덜란드, 독일, 핀란드, 영국, 아르헨티나, 중국, 남한과 북한 등이 있다.

Pilar Mata Dupont graduated from Curtin University of Technology with a BA in Fine Art in 2001. In addition, she holds a certificate of Music Theatre from the Western Australia Academy of Performing Arts, 2007. She is a multidisciplinary artist working mainly in photography and film. She has exhibited collaborative and solo work at galleries such as Centre Pompidou, Paris; The Akademie der Künste, Berlin; Museum of Contemporary Art, Sydney; Gallery of Modern Art, Brisbane; In 2010, she won the prestigious Basil Sellers Art Prize with Tarryn Gill for their film *Gymnasium*. At this time, she is on a two-year research trip during which she is developing projects around the world, including stays in the Netherlands, Germany, Finland, United Kingdom, Argentina, China, and North and South Korea.



I am interested in re-creating or re-imagining memories or histories based on fragments of texts, photographs or people's stories; exploring how memory/ history can be disfigured or glorified. At present I am experimenting with creating narratives, through film and photography, as hybrids of various mythologies and the memories relayed to me by people I meet while traveling. I am doing this in order to create a sort of new world mythology, stripped of the grandeur of the original myth, but bestowing a heightened reality and meaning to ordinary memory. These experiments further my interest in engaging with and subverting storytelling tropes, and resume my investigations into the genre of magic realism as a device to explore the effects of colonialism, nationalism, and militarised societies.



**Gymnasium (Tarryn Gill and Pilar Mata Dupont)**  
2010, HD 필름, 4분 7초

**Gymnasium (Tarryn Gill and Pilar Mata Dupont)**  
2010, HD film, 4' 7"



**Kaiho I**  
2011, HD 필름, 3분 47초

**Kaiho I**  
2011, HD film, 3' 47"

제시카 한셀은 뉴질랜드에서 활동 중인 예술가, 작가이자 음악가이다. 코코 솔리드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한셀의 작업은 혼종성과 함께 자신이 매일 대처하는 편견과 이분법을 파헤치는데 초점을 둔다.

Jessica Hansell is a New Zealand artist, writer and musician. Often creating under the name Coco Solid, Hansell's work focuses on hybridity and the unearthing of many stereotypes and binaries she negotiates daily.

# 제시카 한셀

Jessica Hansell



다양한 분야를 다룰 뿐 아니라 (독일, 사모아, 마오리족의 영향으로) 다문화적인 작가인 한셀은 대중문화가 자신을 가두거나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 도움을 주고 힘을 실어주는 세계를 창조하기 위해 매체와 이데올로기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쳐 결과물을 꽃피우도록 한다. 뉴질랜드에서 한셀은 래퍼로서 알려졌으며 언더그라운드 예술 출판물로도 이름을 알렸다. 그녀는 컬러리 전시나 협업 프로젝트, 온라인을 통해 그녀의 독특한 펑크적 미학을 정기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솔로로 활동하는 음악가로서 그녀는 순회공연을 하며 6개의 스튜디오 음반을 발매했고, 패럴렐 댄스 앙상블(퍼머넌트 배케이션 레코드 소속)과 펑크 그룹인 배드 에너지(플라이닝 누 레코드 소속)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글을 쓰는 작가로서는 올해 빅토리아 대학교 문예창작과에서 석사로 졸업하였고, 최근 <Hook Ups>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연작 만화를 창작했다.

Multi-cultural (German, Samoan and Maori) as well as multi-disciplinary, Hansell cross-pollinates mediums and ideologies to create a world where pop-culture doesn't trap or define her, but only aids and empowers her. In New Zealand, Hansell became known for both rapping and her underground art publications. She showcases her signature punk aesthetic regularly in galleries, collective projects or online. As a solo musician, she has toured and released 6 studio albums, while also being in groups Parallel Dance Ensemble (Permanent Vacation Records) and a punk group Badd Energy (Flying Nun Records). As a writer, Hansell graduated this year from Victoria University with an MA in Creative Writing. She recently created a new cartoon series called *Hook Ups*.



Chimpanzees in love  
2012, 일러스트, 29.7x42cm

Chimpanzees in love  
2012, Illustration, 29.7x42cm



Hook Ups  
2012, 만화, 잡지 'Volume'

Hook Ups  
2012, Comic-Strip for Volume Magazine

루리 마츠모토(1981년 일본 도쿄 출생)는 2004년에 도쿄예술대학을 졸업했고, 2013년에는 독일 뒤셀도르프 예술 아카데미를 졸업하였다. 그녀는 여러 단체전에 참여했으며 독일과 일본 양국에서 예술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현재 뒤셀도르프에서 거주하며 작업 중이다.

Ruri Matsumoto (born in Tokyo, Japan, in 1981) graduated from the Academy of Arts in Düsseldorf, Germany, in 2013, and from the Tokyo National University of Fine Arts and Music in 2004. She took part in several group exhibitions and was nominated for art awards both in Japan and in Germany. She lives and works in Düsseldorf.

# 루리 마츠모토

Ruri Matsumoto

Landeshauptstadt  
Düsseldorf

독일

나는 사물에 대한 인식과 공간에 대한 인식의 관계를 다루는 설치 작업을 창작하고 구축하기 위한 출발점이자 매개체로 내 몸을 이용한다. 작업의 재료를 실과 컬러 포일로 줄임으로써, 나는 관계의 망들을 만들어내고자 하는데, 이는 공간적 대체물의 역할을 한다. 내 작업은 주로 공간을 창조하는 것, 그리고 감성적인 것을 상상적인 것으로 전환하여 그것에 접근하도록 하는데 관련이 있다. 내게 있어 작업의 재료를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나의 정확한 작업 방식만큼이나 중요하다.

I use my body as a starting point and a mediator to create and construct installations, which deal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ption of objects and space. By reducing my material to threads and colour foils, I try to formulate webs of relationships, which serve as spatial placeholders. My artistic work is mainly about creating space and finding access to it by shifting from the emotional into the imaginary. The conscious choice of material is for me as important as my precise working method.



**The room and I #2**  
2013, 실, 종이, 실리콘, 아크릴 물감,  
700x400x400cm

**The room and I #2**  
2013, String, paper, silicon, acrylic color,  
700x400x400cm

**Personal passage**  
2013, 실, 160x300x50cm

**Personal passage**  
2013, String, 160x300x150cm



# 아트 품탕곤

Att Poomtangon

Kulturamt  
Frankfurt  
am Ma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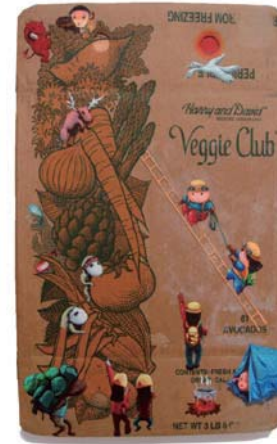
독일

나는 작업을 통해 내 삶 속 경험을 꺼내 시각적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나는 과거와 현재의 사건과 사물을 관찰하고 여행자가 일지에 기록하듯 그것들을 수집한다. 내 작업은 이런 경험이 지닌 내적 현실과 외적 현실 모두를 연결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나는 과거를 바라보고, 가능한 미래들을 상상하는 방법으로써 현재를 지켜볼 수 있다. 과거에 존재했거나 현재 존재하는 모든 사물과 관념은 가능한 앞날의 반영을 제공한다. 나의 예술 작업은 가능한-혹은 가능하지 않은-미래들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My work is about pulling out the experiences in my life and rendering them visually. I observe the events and objects from the past and present, and collect them as a traveler does in his journal. My work connects both the internal and external realities of these experiences. In this way, I can look at the past and witness the present as a way of imagining possible futures. Every object and idea that existed in the past or exists today offers a reflection of potential tomorrows. My art tells stories of these futures that may – or may not – be.

아트 품탕곤은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뉴욕, 태국 치앙마이를 오가며 작업하는 태국출신 작가이다. 1999년 치앙마이 대학을 졸업하고 2008년에 독일 함부르크 조형예술대학에서 마이스터슐러 학위를 받았다. 2012년 뉴욕에서 있었던 <The Devils Is In The Details>전을 비롯해 11회의 개인전을 가졌고 2009년 53회 베니스 비엔날레 등 다수의 그룹전에 초대되었다.

Att Poomtangon is an artist from Thailand who lives and works in Frankfurt a. M., New York, and Chiang Mai in Thailand. He graduated from Chiang Mai University in 1999 and received Meisterschüler's degree from HfBK Städtelschule, Frankfurt a. M. in 2008. He held 11 solo exhibitions including *The Devils Is In The Details*(2012) in New York. Also, he has been participating a number of group exhibitions including *The 53rd International Art Exhibition, Venice Biennale, Making Worlds* in 2009.



**The Devil is in the Details**  
2011, 상업용 판지, 박스 위에 아크릴,  
종이반죽, 가변설치

**The Devil is in the Details**  
2011, Acrylic on commercial cardboard, produce boxes,  
papier-mache, Dimensions variable



# 리자 베버

Lisa Weber

나는 시간과 시간차원, 자연현상을 다루는 작업을 한다. 작업을 통해 나는 수천 겹의 반복에 닮은 일상의 진부함과 순간들을 선보인다. 낮이 밤으로 변하거나 밤이 낮으로 바뀌는 순간들과 같이 시간의 지나치는 것에 관한 우리의 인식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일상의 진부함 너머에 있는 현실을 지적하는 것이다. 설치작업인 <From dawn till dusk>는 금속 재질의 원형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고정된 전구 24개를 보여준다. 전구 각각은 다른 음영으로 빛나며 밝아진 다음 그 앞의 것보다 더 어두워진다. 빛으로 이루어진 연속적인 이 원형은 살짝 기울어진 채 지구의 회전에 반응하는 금속제 원형에 고정되어 있다. 사진작업인 <Zeitgleich>는 자기 앞에서 있는 모니터를 한 손으로 붙잡은 채 땅바닥에 앉아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다. 카메라 두 대가 그 사람을 두 개의 시점에서 촬영한다. 그 중 한 카메라는 모니터 뒤에 놓여있어 사진을 곧바로 화면에 전송한다. 두 번째 카메라는 그 사람이 나오는 두 개의 시점을 동시에 촬영한다. 보통은 시간과 공간에 의해 분리되는 두 개의 다른 시각이 이제 단일한 것으로 지각될 수 있는 것이다.



**Zeitgleich**  
2011, C 프린트, 알루미늄, 81x58cm  
**Zeitgleich**  
2011, C-print, aludibond, 81x58cm

리자 베버는 2011년 독일 마인츠 미술대학과 요하네스 구텐베르크 대학을 졸업하였고, 현재 디터 키슬링 교수의 지도하에 마이스터 과정을 밟고 있다. 웨버는 또한 캘리포니아 치코에 있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순수미술 석사과정을 마친 바 있다. 그녀는 다양한 그룹전과 개인전을 통해 국제적으로 작품을 선보여왔으며, 2013년에는 이탈리아 베니스의 더 카오스 아트 갤러리와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레오폴드 뮤지엄에서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Lisa Weber graduated from the Kunsthochschule Mainz and the Johannes Gutenberg-University Mainz, Germany in 2011 and is a Meisterschülerin of Professor Dieter Kiessling. She also took part in the Master of Fine Arts Program at the California State University, Chico in California. Weber's work was shown internationally in a number of solo and group exhibitions. In 2013, her work will be presented in the Caos Art Gallery in Venice, Italy and the Leopold Museum in Vienna, Austria.

Künstlerhaus  
Schloß Balmoral 독일

My work deals with time, time dimension and natural phenomena. I present everyday banalities and moments worn by thousandfold repetitions. While focusing on our perception of the passing of time, in moments like the transitions from day to night or from night to day, I point out a reality beyond the banalities of everyday life. The installation *From dawn till dusk* shows 24 light bulbs fixed on a metal ring in regular intervals. Each bulb shines in different shades of light and gets first brighter and then darker than its predecessor. The continuous circle of light is fixed on a metal ring, which is slightly tilted and corresponds with the angle of earth's rotation. The Photograph *Zeitgleich* shows a person sitting on the ground holding with one hand a monitor standing in front of her. Two cameras take a picture of the person from two different points of views. One camera is positioned behind the monitor and transfers its picture directly to the screen. The second camera takes the two views of the person at the same time. Two different views, usually separated by time or space, are now perceptible in a unity.



**From dawn till dusk**  
2010, HDV, 프로젝트, 37초  
**From dawn till dusk**  
2010, HDV, Projection, 37sec.



전문가 방문 프로그램  
Art Professionals Visiting Program



세미나  
Seminar



전시연계 워크숍  
Workshop



문화탐방  
Cultural Excursions



오픈스튜디오  
Open Studio



전문가 방문,  
비평 프로그램  
Review and  
Critique by Professionals



출판물 발간  
Publication



전시  
Exhibition

## 운영프로그램

<b>개별작업</b>	국립현대미술관 창작스튜디오는 개별 작가의 창작 활동과 작업 환경을 존중하며 지원합니다.
<b>오픈 스튜디오</b>	일반 대중 및 평론가, 큐레이터, 기자, 갤러리스트 등의 미술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작업실을 공개하고 입주기간 동안의 작품을 정리하여 선보입니다.
<b>전시</b>	국내외 연계 미술관 및 문화예술기관, 스튜디오 전시실 등지에서 입·출신작가 전시를 개최함으로써 창작활동 발표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작가와의 대화, 라운드 토크, 세미나 등의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피드백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b>국내외 교류 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교환입주 프로그램</b>	국내 최초로 국제레지던스프로그램협회인 Res Artis 및 AAC의 멤버로 활동하며 입주 작가들의 국내외 소개와 교류를 적극 지원하고 외국 레지던스 프로그램과의 연계 및 교환입주를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 입주작가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신선한 작업 영감을 얻고 스스로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은 물론 해외 진출의 기반까지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며, 외국 작가들은 직접 한국의 문화 예술 환경을 경험하고, 그들의 작품을 국내에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b>유네스코-아쉬버그 장학연수 프로그램</b>	유네스코, 국제문화증진기금(IFPC) 그리고 각 국의 참가기관(레지던스 프로그램)이 함께 전 세계 젊은 예술가들에게 1~3개월간 외국의 예술기관에서 작업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인 유네스코-아쉬버그 장학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b>아시아퍼시픽작가 입주프로그램</b>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젊고 유망한 현대미술작가들을 초청하여 동북아 미술의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향후 아시아 현대미술의 중심 거점으로 역할하기 위해 아시아퍼시픽작가 입주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b>지역연계 프로젝트</b>	지역 내에 열린 문화시설로 지역연계 및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과 스튜디오를 연계하는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서 역할하고 있습니다.
<b>학술행사</b>	동료작가들과 평론가, 기자, 큐레이터 등이 모여 서로의 작업을 공유하고 토론을 통해 새로운 모색을 하기 위한 작가 설명회 및 현대미술 제반의 담론을 짚어보며 정보를 제공하는 다양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b>전문가 방문프로그램</b>	미술계 내·외 관계자들을 초청, 스튜디오 방문을 추진함으로써 입주 작가와 전문가의 다양하고 폭 넓은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며 창작역량 제고와 확충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b>문화탐방 프로그램</b>	외국작가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국내 주요 미술관, 박물관의 전시 감상 및 관련 종사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합니다.
<b>출판물 발간</b>	프레젠테이션과 세미나 자료를 통합 정리한 국,영문 단행본을 발간하여 국내외의 주요 미술관과 갤러리, 창작스튜디오를 통해 홍보합니다.

## PROGRAMS

<b>Support for Individual Artists</b>	The National Art Studio, Korea respects individual artists' creativity and supports them with overall working conditions.
<b>Open Studio</b>	Each artist and the artistic outcomes achieved during their stay will be shown to the public and art professionals, such as critics, curators, reporters, and gallerists.
<b>Exhibitions</b>	Through the exhibitions in the Studio gallery, artists in residence are provided the opportunity to present their works and expected to get the feedback on the subject from invited art professionals and audiences, followed by artist's talks, round talks and seminars.
<b>International Residence Exchange Program</b>	As the first domestic member of Res Artis(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Residential Art Centres) and AAC(Alliance of Artists Communities), National Art Studio, Korea actively supports international exchange of our artists in addition to promoting alliances and artistic correspondence with fellow overseas artists-in-residency programs. In doing so it increases creative motivation in its domestic artists by exposing them to new environments, offering them a chance to promote themselves on an international level. To foreign artists, National Art Studio enables them to experience Korean culture and introduce their art to Korean society.
<b>UNESCO-Aschberg Bursaries for Artists Programme</b>	National Art Studio, Changdong, in partnership with the UNESCO-Aschberg Bursaries for Artists Programme, offers 3 months bursaries to young visual artists from around the world.
<b>Asia Pacific Artists Fellowship Program</b>	By selecting young, promising contemporary artists from the Asian Pacific region, we aim to stimulate the artistic exchange between North East Asian countries. We operate the Asian Pacific Fellowship Program in order to become the upcoming central hub of Asian modern art.
<b>Community Art Projects</b>	National Art Studio, Korea endeavors to culturally communicate with local residents by supporting community art projects.
<b>Academic Events</b>	National Art Studio, Korea holds artist presentations in which fellow artists in residence, art critics, editors, curators and so on will participate in the sharing of their works and the exploration of new artistic possibilities, and it also presents various seminars to examine diverse discourses on contemporary art and other valuable information.
<b>Art Professionals Visiting Program</b>	National Art Studio, Korea enhances artists' creative capabilities by providing opportunities to meet art professionals at the studio.
<b>Cultural Excursions</b>	National Art Studio, Korea arranges opportunities for foreign artists in residence to experience Korean art and culture.
<b>Publications</b>	The materials of annual events organized by National Art Studio, Korea are published in bilingual (Korean/English), and distributed for public relations to leading museums, galleries, and artist-in-residencies both nationwide and overseas.

인사이트씨잉의 조성배, 나광호, 이정훈, 최형욱은 국민대학교 미술학부에서 회화를 전공하였다. 2012년 팀을 결성하여 경기창작센터에서 《123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先感圖(선감도: 선조들이 감응한 지도)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2013년 국립현대미술관 창동창작스튜디오 지역연계 프로젝트 입주작가로 선정되어 창동에서 先感圖(선감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Insightseeing is composed of Cho Seong Bae, Na Kwang Ho, Lee Jung Hoon and Choi Heong Uk. Graduated from the College of Art at Kookmin University with degrees in Painting, they formed a group in 2012 and participated in 123 Project at Gyeonggi Creation Center with *Seon Gam Do Project*. Now an artist in residence for the community art project at National Art Studio, Changdong, they are continuing to develop the project.

# 인사이트씨잉

Insightsee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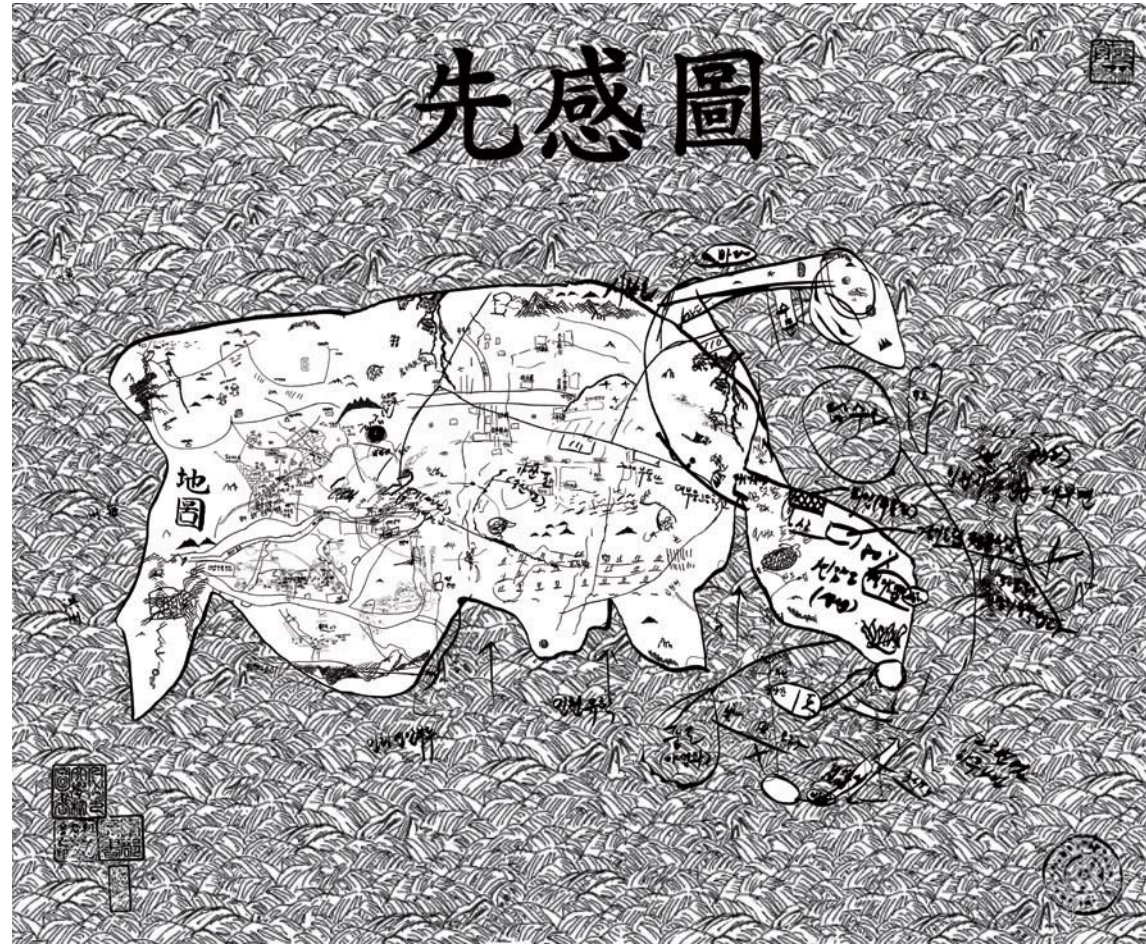
한국

## 선감도 先感圖 프로젝트(Seon Gam Do Project)

인사이트씨잉은 장소를 바탕으로 일반의 삶과 지역의 문화자원, 문화적 이미지와 오브제, 텍스트 등을 탐색하고 예술적 해석을 통하여 시각예술 방법론의 확장을 모색 및 실험하기 위한 아트팀(Art-team)이다. 선감도(先感圖) 프로젝트는 창동에 살고 계시는 주민 분들이 자신들의 삶의 공간을 기억하는 상상방식과 외부에서 보편적인 행정 편의성으로 기획된 지도(maps)제작의 감각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궁금증에서 출발하였다. 주민들의 주관적 지리 감각과 지역의 이야기들을 수집하고 기록하여 지도(Memorial scale maps)와 아카이브 북(Archive book)을 제작하고 프로젝트 과정을 볼 수 있는 사진들과 함께 전시할 것이다.

## Seon Gam Do Project

Insightseeing is an 'art-team' that aims to examine the ordinary life, local cultural resource, cultural image, object and text and to find and experiment with the expansion of methodologies in visual arts through its artistic interpretation of such subjects. *Seon Gam Do Project* departed from a question about the difference between the local residents' imaginary ways of remembering their living space in Changdong and the sensitivity of producing official maps that are created for the sake of administrative convenience. The project will collect and record the local residents' subjective sense of geography and their stories to produce 'memorial scale maps' and an 'archive book', which will be exhibited with photographs of the process of project develop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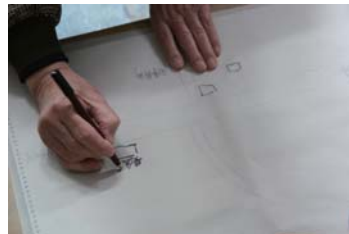
先感圖  
2012, 종이에 실크스크린, 130x160cm

Seon Gam Do  
2012, Silkscreen on paper, 130x160cm



123 프로젝트  
빈집, 2012

123 Project  
Vacant House, 2012



先感圖 프로젝트  
2012

Seon Gam Do Project  
2012

# 김인숙, 김명권

KIM insook, KIM Myongkwon

한국

나에게 사진은 '만나는 행위'이다. 카메라를 들고 작가가 된 순간부터 끊임없는 만남을 경험하고 있으며, 만나는 행위의 흔적을 담은 사진들로 구성된 photo installation과 video installation 작업을 통하여 나의 이야기는 재현된다. 개인의 "기억"을 수집하여 사회적, 역사적 위치에 놓인 사람들의 삶에 조명을 주는 행위를 오랜 기간 진행 중이다.

재일교포를 '사이'에 놓인 사람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며 그들의 개성과 삶을 포착하기 위해 촬영된 사진과 영상 이미지를 설치하여 그들의 삶의 보편성을 재구성한다. 자신의 첫 한국생활 1년 동안을 기록한 <남에게 드리는 편지>에서는 한 청년의 정체성의 혼란을 표현하였으며, 학교를 12년간 담아낸 <sweet hours>에서는 사회적 편견으로 바라보는 공간을 개인의 추억이 담긴 공간으로 표현했다. 2008년부터 진행 중인 Family portrait 시리즈 <사이에서: between two Koreas and Japan>는 2008년에서 시작하여 20년의 제작기간을 계획하고 있다. 앞으로 한 세대가 바뀌는 동안 가족들의 정체성과 그들에게 놓인 '사이'의 변모, 그리고 삶의 변화 속에서도 대대로 이어지는 '의지'를 담고자 한다. 이번 도록에 실린 <go-between>은 시대와 세대, 사회, 문화, 역사, 나라, 이데올로기 등 다양한 경계와 세상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두 소녀의 포트레이트 연작이다.

2013년 국립현대미술관 창동창작스튜디오 지역연계 프로젝트에서는 지역주민들의 학교에 관한 기억을 수집 및 집합하여 '학교'라는 보편적인 공간에서 세대 간의 교류를 이루게 하는 사진, 영상 및 퍼포먼스 작품을 제작한다.

김인숙은 오사카 쇼인여자대학 의상학과와 비주얼아트컬리지 오사카 사진학과,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회화과 사진영상전공을 졸업하였다. 개인전으로 《사이에서: between two Koreas and Japan》(갤러리 이룸, 2008), 《sweet hours》(광주시립미술관, 2008), 《남에게 드리는 편지》(STUDIO EARKA, 오사카, 2004) 등을 가졌으며, FOTOFO국제 사진페스티벌(2006, 슬로바키아), 홍콩국제사진페스티벌(2012), 서울시립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 등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하였다. 2012 대구사진비엔날레 '포토리뷰' 우수작가, 2011 서울사진축제 '포토리뷰' 우수작가로 선정된 바 있으며, 2012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음 컬렉션에 47점이 소장되었다.

KIM insook graduated from Osaka Shoin Women's University with a BA in Fashion and studied photography at Visual Arts College Osaka. She received her MA in Painting, Photography & Images from Hansung University. She had a number of solo exhibitions, including *letter to You*(2004) at STUDIO EARKA in Osaka, *sweet hours*(2008) at Gwangju Museum of Art, and *SAIESEO: between two Koreas and Japan*(2008) at Gallery ILLUM. She was also presented in many group exhibitions that include the 16th Festival Month of Photography(2006) in Slovakia, Hong Kong International Photo Festival (2012) among others. She was selected as an artist in excellence in a 'Photo Review' programs at Seoul Photo Festival(2011) and Daegu Photo Biennale(2012). In 2012, Ha Jung-Woong Collection at Gwangju Museum of Art acquired 47 works by KIM insook

To me, photography is 'an act of meeting'. From the very moment I grabbed a camera and became an artist, I am experiencing constant series of meetings. My stories are represented via photo installation and video installation that are composed of photos that carry the traces of an act of meeting. For a long time, I have been continuing to put a light on the lives of people who are situated in certain social and historical positions. I view Koreans in Japan as the ones who are put 'in between', reconstructing the universality of their lives by installing photos and video images that I have taken to capture their individuality and lives. *letter to You*, a work in which I have recorded the first year of my life in Korea, expresses an identity crisis of a young man. Being a 12-year record of a school for Koreans in Japan, *sweet hours* presents a space that is seen through a view tainted with a social prejudice as a space with personal memories. *SAIESEO: between two Koreas and Japan*, an ongoing family portrait series since 2008, is planned to be produced with the time frame of 20 years. The project aims to record the change of family identity and the 'in between' in them as well as the 'will' that is continued throughout generations despite the change of their lives. *go-between*s, a work presented in the current publication, is a portrait series of two girls that play the role of connection between the world and various boundaries such as the times, society, culture, history, state and ideology. For the community art project at National Art Studio, Changdong this year, I am planning to collect and aggregate memories of local residents about school to produce photograph, video and performance piece that enables the exchange between different generations in the universal space of 'school'.



김인숙  
go-between  
MeeHee 2005-2010-2002, 2013,  
디지털 c-프린트, 100x50cm

KIM insook  
go-between  
MeeHee 2005-2010-2002, 2013,  
Digital-c-print, 100x50cm

# 클로다 이모

Clodagh Emoe

아일랜드

나의 작업은 집단의 층위에서 “사이”에 위치한 경계에서의 경험들을 탐구하는 것이다. 전략적으로는 의례적인 일과 연관되어 있으며, 사건은 규범적인 구조가 상징적으로 중단된 일시적 상황에서 일어난다. 또한 감각들을 강화시키기 위한 과정으로서, 작업은 매우 특별한 오브제들의 결합으로 만들어진다. 17m x 7m 크기의 수작업으로 제작된 매트트는 단순히 넓은 공간을 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친밀하게 모일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이 매트트가 어떠한 방식으로 친밀감을 증진시키는지에 대한 것은 철학자 사이먼 크리칠리가 숲에서 개최한 심야 강의인 ‘Mystical Anarchism’과 폭발이 예정되어 있는 부지, 골웨이에 위치한 술집, 아일랜드 내셔널 갤러리 등 다양한 장소에서 행해진 집단 최면 수면 행위인 ‘Metaphysical Longings’를 통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작업들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 현재도 지속되고 있으며, 나는 이를 통해 집단적으로 사고들을 펼쳐낼 수 있는 예술의 가능성에 대해 탐구하고 있다.

클로다 이모의 작업은 철학자 시몬 크리칠리의 비공식 강연 ‘Mystical Anarchism’과 아일랜드 내셔널 갤러리에서 행해졌던 집단 최면 수면 ‘Metaphysical Longings’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아일랜드 예술협회와 유럽 문화재단이 수여하는 상을 받았으며, VCCA(미국), Banff(캐나다), Sim(아이슬란드)의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IMMA(아일랜드 국립현대미술관)와 런던예술대학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으며, 런던 쉐시 예술대학에서 회화로 석사학위를, 더블린의 NCAD에서 조각으로 학사학위를 받았다.

Clodagh Emoe's artworks initiate gatherings as evidenced by, *Mystical Anarchism* an unauthorized midnight lecture with philosopher Simon Critchley and *Metaphysical Longings*, a collective psychic sleep in the National Gallery of Ireland. Clodagh has received awards from The Arts Council of Ireland, Culture Ireland and the European Cultural Foundation and been awarded residencies at VCCA(USA), Banff(Canada) and Sim(Iceland). Clodagh's work is included in the collections of IMMA and The University of the Arts, London. She holds a MA Fine Art(Honors Distinction), Chelsea College of Art and Design, London and a BA, Fine Art Sculpture(Honors), NCAD, Dublin.

My work engages with liminality by seeking to encourage experiential "in-between" states on a collective level. Using strategies associated with ritual, the framework of the event has emerged to evoke temporary situations where normative structures may be symbolically suspended. Processes that intensify sensation, such as forms of meditation are used in conjunction with specific objects. A hand-made mat measuring 17m x 7m not only demarcates a vast area but allows over three hundred people to gather together intimately. How this mat facilitates these intimate gatherings is exemplified by *Mystical Anarchism*, a midnight lecture staged in a forest with philosopher Simon Critchley and *Metaphysical Longings*, as collective forms of psychic sleep enacted in numerous locations that include a flat due for demolition, a pub in Co. Galway and the National Gallery of Ireland. These artworks are ongoing and through their enactment I seek to explore the capacity of art to initiate realms where thought may unfold collectively.



**Mat**  
2009-, 벨벳, 몰스킨, 면과 향, 1700x700cm  
이 매트트는 ‘Mystical Anarchism’, ‘Metaphysical Longings’ 상연에 이용되었으며, 현재 더블린 후 라인 미술관에서의 협동 프로젝트 ‘Sleepwalkers’에 사용되고 있다.

**Mat**  
2009-, Velvet, moleskin, cotton and scent, 1700x700cm  
This mat has been used in the enactment of events that include *Mystical Anarchism* and *Metaphysical Longings*. It currently functions as part of the collaborative project, *Sleepwalkers*, at the Hugh Lane Gallery, Dublin

미코 쿠오린키는 투르쿠 아트 아카데미에서 사진으로 학사학위를, 헬싱키 예술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최근 빌뉴스 현대미술센터와 헬싱키에 위치한 핀란드 사진미술관, 스웨덴 말뫼의 스킨에스 예술협회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또한 헬싱키 미술관, 핀란드 키아즈마 국립현대미술관, 코펜하겐의 오베가덴 등에서 다수의 단체전을 가졌다.

Mikko Kuorinki holds a BA in photography from Turku Art Academy and received his MFA from University of Arts and Design Helsinki. He has recently had solo exhibitions at institutions such as CAC in Vilnius, The Finnish Museum of Photography in Helsinki and Skånes Konstförening in Malmö. His recent group exhibitions include Kunsthalle Helsinki, Kiasma Museum of Contemporary Art in Helsinki and Overgaden in Copenhagen.

# 미코 쿠오린키

Mikko Kuorinki

핀란드

미코 쿠오린키의 작업은 우리가 속한 세계와 공간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한 탐구이다. 그는 개인과 물리적 실제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오브제와 언어들을 사용한다. 작가에게 작업에 사용된 물질들은 어떤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세계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최근의 작업에서 방황하는 행위를 주요한 방법의 하나로 사용하고 있다. 이 행위는 익명의 도시 속 거리나 끝없이 인터넷 세계를 떠도는 물리적 방랑을 의미하는 것이다. 목적을 상실한 듯 보이는 이러한 불안정한 표류는 우리를 둘러싼 세계와 그 안의 현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날카로운 관찰력에 의해 행해진다. 이 작업들을 위한 촉매제는 현대시에서부터 운동 장비들의 미학, 그리고 미국 시트콤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

Through his works Mikko Kuorinki investigates how we understand the world and our place in it. He uses objects and language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dividual and the physical reality. For Mikko Kuorinki, the materials of the works are not symbolic, but instead he is interested in the world as it is.

One of the central method in Kuorinki's current practice is the act of wandering. It can mean for example physical roaming in the streets of an unknown city or endless browsing of the internet. This seemingly aimless drifting is however guided by sharp-eyed observation, and perpetual interest in the surrounding world and its phenomenons. The stimulus for the works can be found anywhere from contemporary poetry to the aesthetics of a gym equipment to American sit-coms.



**Union**  
2010, 유럽연합 27개국 국기로 만들어진 핸드메이드 카펫, 110x225cm, 일포 코스키칼리오 제작

**Union**  
2010, Handmade carpet made out of 27 national flags of European Union, 110x225cm, Manufactured by Ilpo Koskikallio.

마이야 블라필드는 핀란드 헬싱키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시각예술가이다. 주로 다큐멘터리 영상과 사진을 다루며 경우에 따라 드로잉이나 설치와 같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기도 한다. 2004년 핀란드 예술 아카데미에서 석사학위를 받았고, 핀란드 키아즈마 국립현대미술관, 헬싱키 미술관, 핀란드에서 개최된 다양한 전시와 영화제에서 작품을 선보였으며 텔레비전을 통해서도 방영된 바 있다. 벨기에의 AIR 안트베르펜 레지던스와 HIAP와의 협업으로 프랑크푸르트 레지던스 등에 참여한 바 있다.

Maija Blåfield is a visual artist based in Helsinki, Finland. She works with documentary moving images and photography and occasionally uses diverse media, such as drawings and installation. She received her MFA at the Finnish Academy of Fine Arts in 2004. Her work has been shown among other places at the Museum of Contemporary Art Kiasma and Kunsthalle Helsinki and in several exhibitions and film festivals in Finland and abroad as well as on television. She has attended artist residencies such as AIR Antwerpen in Belgium and City of Frankfurt in collaboration with HIAP.

# 마이야 블라필드

Maija Blåfield

핀란드

마이야 블라필드의 작업은 현실 속에 내재되어 있는 비현실적 측면을 탐구하고 있으며 다큐멘터리적 요소가 강하게 들어있다. 그의 작업은 진부한 일상 속의 미학적인 장면들을 일시적으로 목격하는 방식으로 드러나는데, 말하자면 이것은 또 다른 실재에 대한 관찰이다. 또한 작가는 다큐멘터리적 요소와 허구를 한데 엮기 위해 스토리텔링의 방식과 구어들을 사용한다.

Maija Blåfield's works explore the fantastic side of the reality and have distinctive documentary elements. The works are often observations of another reality which is revealed momentarily to a lucky viewer in the midst of some mundane aesthetic environment. She also uses storytelling and spoken word to bind together documentary and fiction.



**Beautiful**  
2011, 15개 피그먼트 프린트 연작 중에서, 가변크기

**Beautiful**  
2011, From a series from 15 pigment prints, Variable size



**If I Were Buried at a Street Corner**  
2011, 비디오 스틸, HD 1080p, 5분 35초

**If I Were Buried at a Street Corner**  
2011, Video still, HD 1080p, 5' 35"



**Golden Age**  
진행중인 작업 2012-, 비디오 스틸, HD 1080p

**Golden Age**  
Work in progress 2012-, Video still, HD 1080p

# 린다 퀴란

Linda Quinlan

린다 퀴란의 비디오와 오브제들은 마치 시각적 연금술과도 같이 이미지와 사운드 사이의 관계를 유희적인 짜임으로 연출해낸다. 그의 작업은 물질에 대한 탐구를 기반으로 그 구체적인 움직임의 흔적들을 쫓고, 문화 현상들의 변화 속에 존재하는 사실과 권력의 상호작용에 대해 다룬다. 물질에 대한 작가의 깊은 성찰은 물질적인 세계와 오브제들이 의미의 체계, 사회적 관계, 경제와 교환에 대해 이야기하는 상황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이해할 것인지 결정하는 집단과 권력의 문제에 대해 파고든다.



**MROOUCTKH**  
2011, HD 비디오 설치, 6분 반복재생

**MROOUCTKH**  
2011, HD Video installation, 6mins. loop

아일랜드 더블린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린다 퀴란은 로테르담의 피에 초바르트 인스티튜트에서 석사 과정을 마쳤다. 최근에는 바네사 데르클로의 기획으로 런던 블룸버그 스페이스에서 개인전을 가졌으며, 안 버버트가 기획한 《Love Magic Trade Object》(아트 제네바 12), 나타니엘 멜로스와 크리스 블로어가 기획한 《Hypercolon》(암스테르담 스마트 스페이스 프로젝트), 레지나 바룬크가 기획한 《Screening Room Dublin》(윌름 콘스트페어라인) 등에 참여하였다. 또한 아일랜드 현대미술관, 더글라스 하이드 갤러리, 크로포드 갤러리, 켈웨이 아트센터, 곶, 휴즈 레인 갤러리, 클럭스만 등에서 전시를 개최한 바 있다. AIB상의 수상자이며, 현재 아일랜드 현대미술관, 아일랜드 예술위원회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Dublin based Linda Quinlan has an MFA from the Piet Zwart Institute, Rotterdam. Recent exhibitions include a solo show at Bloomberg SPACE, London, curated by Vanessa Desclaux, *Love Magic Trade Object*, curated by Jan Verwoert, Art Geneve 12, Geneva, *Hypercolon* curated by Nathaniel Mellors and Chris Bloor, Smart Project Space, Amsterdam and *Screening Room Dublin*, curated by Regina Barunke, Koln Kunstverein, Cologne. In Ireland she has exhibited at the Irish Museum of Modern Art, the Douglas Hyde Gallery, the Crawford Gallery, the Galway Arts Centre, the RHA, the Hugh Lane Gallery and the Glucksman. She was awarded the AIB Prize and is in the collection of the Irish Museum of Modern Art and the Arts Council of Ireland.



Linda Quinlan's primarily video and object based practice weaves a kind of visual alchemy, choreographing a playful set of relations between image and sound. Her work is grounded in an investigation of material and traces the concrete movement and interplay of matter and energy through the evolution of cultural phenomena. Her meditation on material burrows deep into the folds and forces that determine our understanding of the material world and creates situations where objects speak about systems of meaning, social relations, economy and exchange.



**Under The Influence**  
2013, HD 비디오 설치, 5분 반복재생

**Under The Influence**  
2013, HD Video Installation, 5mins. loop

# 프란딕 칼리타

Prandeep Kalita

모더니즘의 여명기에 폴 고갱은 자신에게: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라는 여전히 미결인 질문을 주제로 일련의 작품을 제작하였다.

바로 이 딜레마는 나로 하여금 스스로에게 우리의 과거와 문화 그리고 자아에 대한 질문을 하게끔 만들었다. 그리고 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단순히,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의문이 아닌 “과연 이 ‘누구’냐고 말할 수 있는 ‘나’라는 존재는 대체 누구인가.”의 의미이다. 모더니스트들의 거대 서사는 전 지구화된 세계에서 그 본질을 잃어버렸고, 궁극적으로는 문화적 진공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만약 내가 S. 아흐메드의 의견에 동의한다면, “새로운 세계 질서”에 따라 내부로 붕괴하거나 혹은 외부로 폭발하는, 오직 두 종류의 사회만이 존재한다. 탈지구화 시대의 체계는 아직까지 명백히 정의 내려지지 않았다. 우리는 오로지 이 새로운 체계가 과연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망명, 이주, 난민의 상황에 놓은 이들을 대변해줄 수 있을 것이냐는 의문을 가질 뿐이다. 과연 새로운 세계 질서는 제도적, 경제적 혹은 정치적으로 구조화되지 않은 삶을 아우를 수 있을 것인가. 이와 같은 존재론적 조건들은 아마도 국적 없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국가와 같은 개념으로도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내가 작업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핵심이다.

프란딕 칼리타는 1980년 인도 아삼에서 출생하였다. 2002년 아삼 가우하티의 국립예술대학에서 학사학위를, 2004년 인도 구자라트의 바로다 M.S.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2005년 인도 UGC의 주니어 리서치 펠로우십을 지냈으며, 2005년 가우하티의 IIT의 포드 재단이 주최한 워크숍 《Theory After Derrida》, 2009년 콜카타의 ECA가 개최한 세미나 《Twisti-Twosti: Identities Migrating/ Migrating Identities》등에 참여하였다. 주요 전시로는 2006년과 2008년 《Modus Operandi and Imagined Realities》(바로다 레드 얼스 갤러리), 《Imagist》(뉴델리 스리다르니 아트 갤러리), 단체전 《New Delhi and Gen Next III》(콜카타, 2008), 《Beauty looking into the eyes of beholder》(바로다, 2010) 등이 있다. 현재 인도 바로다에서 거주하면서 활동 중이다.

Prandeep Kalita was born in Assam, India in 1980. Bachelor of Fine Arts from Govt. College of Art & Crafts, Guwahati, Assam in 2002 and Master of Visual Arts from M.S. University of Baroda, Gujarat, India in 2004. Junior Research Fellowship, UGC, India in 2005. Workshop/seminar: *Theory After Derrida* org. by Ford Foundation in IIT, Guwahati in 2005 and *Twisti-Twosti: Identities Migrating/ Migrating Identities*, ECA, Kolkata in 2009. Selected major Exhibition: *Modus Operandi and Imagined Realities* in Red Earth Gallery, Baroda in 2006 and 2008. *Imagist* in Sridharni Art Gallery, New Delhi and *Gen Next III* Group Show in Kolkata in 2008. *Beauty looking into the eyes of beholder* Group show in Baroda in 2010. Lives and work in Baroda, India.

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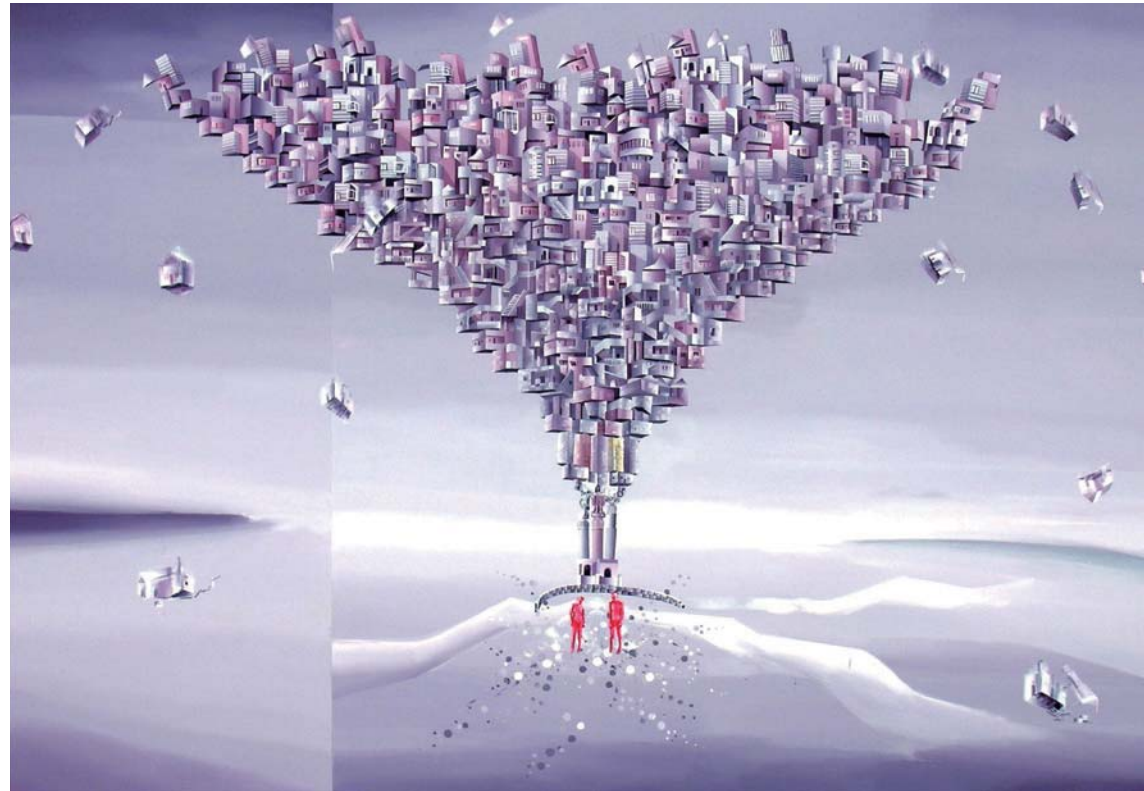
At the dawn of Modernism, Paul Gauguin famously asked of himself and of his artist peers a deceptively simple, yet ultimately unanswerable series of questions: “Who are we? Where do we come from? Where are we going?”

This dilemma forced me to question myself, our past, our culture and question of the self, “Who am I?” not in the sense of “Who am I?”... But rather, “Who is this ‘I’ that can say, ‘who’? The modernist grand narrative has lost all their substance in a globalized world which ultimately leads to cultural vacuum. If I agree with S.Ahmed only two types of societies exist in this “New World Order” those that are imploding and those that are exploding. Post globalization system which is still not clearly defined. We can only ask that will this new system represent the undocumented people, the exiled, the displaced, the migrated. Will the new world order, a form of life which is not structured institutionally, economically, politically and otherwise. Such an existential condition may perhaps be mentioned as a nation without a state, a nation consisting of peoples and not nationalities? This is the very basic domain from where I try to express in my paintings.



**The World Is Flattened**  
2011, 캔버스에 아크릴, 71x91cm

**The World Is Flattened**  
2011, Acrylic on canvas, 71x91cm



**Promised land of vertical thoughts**  
2008, 캔버스에 아크릴, 152x213cm

**Promised land of vertical thoughts**  
2008, Acrylic on canvas, 152x213cm

# 압두스 살람

Abdus Salam

우리는 종종 우리의 문화유산, 일상의 사건들, 역사, 영웅들 그리고 그들의 업적들을 잊어버리곤 한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변화를 강요하거나 혹은 꽤 오랜 기간 문화의 일정 부분을 벗어나 지 못하게끔 하는 위성 문화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기 때문일 것이다.

세계화와 자본주의라는 미명 하에 미디어와 미디어화된 인간들은 인간의 감정들을 포함한 모든 것을 화려한 색깔들로 덧입혀 상품화시킨다. 그들은 거짓된 진보와 기술적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혼성적인 삶의 양식뿐만 아니라 문화까지 만들어내고 있다. 심지어는 안락함을 내세워 숨을 쉬기 위한 자연의 공기까지도 포장하여 판매하고 소비자들을 현혹시킨다.

지금이 바로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고 혼성적 감각들에 반하여 목소리를 높이고, 힘을 북돋아 대중들의 불안을 완화시켜주고 재충전해야 할 때이다. 이제는 자신이 위치한 공간 속에서 자기 스스로를 발견하고 재평가하며, 거울 뒤에 숨어 있던 스스로에게 능력을 부여하여 잃어버린 감각들을 길러내고 예술 언어를 통해 그것을 촉진시키고 변환시켜야 한다.

압두스 살람은 2001년 방글라데시 다카 미술대학에서 판화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영국 런던의 런던 프린트 스튜디오에서 컴먼웰스 아트 펠로우십 과정을 마쳤다. 1998년, 2000년, 2001년 그리고 2009년에 방글라데시 다카 실포카라 아카데미에서 수여하는 다수의 국가 예술상들을 수상했다. 2007년 일본의 후쿠오카 아시아 미술관 레지던스에 참여하였으며, 2009년에는 스위스 예술협회가 수여하는 프로 헬베티아 장학금을 받았다. 최근 작업에서는 한 도시의 시각적 효과를 만들어내는 도시의 역사 혹은 문화적 정체성을 다루고 있으며, 이것은 일명 "스페이스 프린트"라고도 불린다. 그의 작업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역사와 건축, 전통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미의 개념에 새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Abdus Salam received his MFA in print-making institute of Fine Arts University of Dhaka, Bangladesh 2001. Before his MFA he received The Commonwealth arts and crafts Fellowship that Completed under the Londonprint Studio at London, UK. He was received several national art award in 1998, 2000, 2001 and 2009 from Bangladesh Shilpokala Accademy, Dhaka, Bangladesh. He did the residency under the Fukuoka Asian Art Museum, Japan 2007 and Pro Helvetia Grant 2009, Swiss art council, Switzerland. His recent project is "space print". He is now working with the history, cultural identity, makes a visual impact of the city, which is make possible new thinking in peoples' mind about the history, architect, tradition that surround them as well as the beauty they incite.

방글라  
데시

We tend to forget our authenticity our cultural heritage, day to day happenings, history, our heroes, their devotion because of the ever-increasing satellite culture that has been reinforcing to change or at least grab the share of our culture for quite some time now.

In the name of Globalization capitalists, Medias, media men keep on creating everything a commodity product including human emotions by adding extra fluorescent colors to it. Attracting them and selling even the naturally produced fresh air to breath, in the name of comfort and hijacking people's breath-right. In the name of pseudo-progress and technological advancement they are creating hybrid life-style and culture as well.

It's high time to recharge and stimulate the nerves of the populace, take lessons from the history, as oppose to those hybrid senses to raise voice and cheer up. I believe its time to self-discover, re-evaluate, enabling myself to place before the mirror and nurture the lost senses and stimulate them and translate them simply through art languages.



## Roller taking print

2012, 7개의 자동차 바퀴로 된 고무 판화, 5개의 고장난 윈드실드, 헤드라이트 등, 가변크기, 방글라데시 국립미술관 (2012년 아시아아트 비엔날레)

## Roller taking print

2012, Rubber engraving print with 7 wagon wheel, 5 broken vehicle windshield, vehicle headlight etc, Variable size, Bangladesh National Art Gallery (in the part of Asian art biennial 2012)

# 데바슈리 다스

Debasree Das

인도

‘정체성’과 ‘여성성’은 내 작업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두 개념이다. 나는 항상 극히 개인적이고, 나의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에서 영감을 얻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내적인 감각들은 언제나 작품과 연결되어 있으며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은 작업에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

나는 ‘여성성’에 대한 개념을 강하게 표현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으로 달콤한 생각들의 가방 속에 “나의 정체성”들을 포장해 넣기 시작했다. 다시 말하자면, 일종의 문화적 변형이 나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것이며 여기에서 쓰이는 방법적 접근은 매우 중요하다. 자수, 바느질과 같은 방법은 수백만의 가정주부들이 경제적 활동으로 하고 있는 행위와 일치하는 것이다.

최근에 나는 혼합 매체를 다루고 있으며, 새로운 매체의 가능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있다. 나는 물질이 나의 작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의 적절한 사용이 작업의 표현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본다. 나는 어떤 아이디어와 가장 잘 어울릴 수 있는 나무, 종이 콜라주, 천, 실과 같은 재료들을 매우 즉흥적으로 선택한다.

데바슈리 다스는 2005년 인도 가우하티 국립예술대학에서 그래픽으로 학사학위를 받았으며, 2007년 바로다의 M.S대학 대학원에서 그래픽 전공으로 대학원 과정을 마쳤다. 2008년 콜가타 비블라 아카데미 어워드 수상하였으며, 2010년에는 캄린 유럽 아트 투어 어워드의 수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뉴델리의 니브 아트센터 레지던스에 참가하였으며, 2013년에는 Mumbai의 뷰잉룸 갤러리와 함께 제 5회 인도 아트 페어에 참여한다. 최근 작업에서는 문화적 변형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여기서 매체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작업에 사용되는 자수와 바느질, 천짜기 등은 인도의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Debasree Das received her BFA in Graphics at Govt College of arts and crafts Guwahati, 2005 and completed post graduate in Graphics at Faculty of Fine Arts M.S University Baroda, 2007 with distinction. In 2008 she got Birla Academy Award, Kolkata. In 2010 she was awarded Camlin Europe Art Tour Award. She attended Niv Artist in Residency at Niv Art Center, New Delhi. In 2013 she had participate 5th Indian Art Fair with Viewing Room Gallery Mumbai. Recently her works deals with a kind of cultural transformation where the medium play's a very important role. Embroidery, stitching, weaving and other respective modes used as medium in her work, are directly linked to the practice (used by household women in their daily life) used throughout India.

‘Identity’ & ‘Feminity’ become two important stand points when it comes to my conception of art. I have always been inspired by extremely personal & enduring things occurring around me. My inner sense directly makes me link my work to the instances of my surroundings where in the subject plays a very important role.

I started wrapping “my personal identity” into the bags of sweet thoughts introducing new medium to express my strong notions of ‘Feminity’. As I relocated, a kind of cultural transformation appeared in my work and where the medium played a very important role. Embroidery, stitching, weaving & other receptive modes which I use as medium in my work are directly linked to the economic activities carried out by millions of household women.

I mostly work with the mixed medium and I love to explore the possibilities of new medium. I feel that the material becomes a very important and the most integral part of the work; as the best possible use of the same can make the work more expressive. I pick up the medium very spontaneously which I feel that can go along with a particular idea like wood, paper collage, cloth and threads and so on.



Some Stains Remain Forever – IV  
2013, 손자수, 캔버스에 아크릴, 46x50cm

Some Stains Remain Forever –IV  
2013, Hand embroidery, acrylic on canvas, 46x50cm

# 캐서린 사라 영

Catherine Sarah Young

나는 나의 다양한 학문적 배경과 다문화적인 경험을 통해 과학과 예술 사이의 유사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과학의 객관적 사실들과 이를 통해 학습한 물질의 특성들은 여전히 내 예술의 근간으로 존재한다. 또한 나는 과학이 지닌 시학을 효과적으로 끌어내 주는 것이 바로 예술이라고 생각한다. 예술은 인간의 경험이 지닌 풍성함을 보존해주는 역할을 한다.

나는 인간의 감각을 통한 지각 방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인간이 무언가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우리가 세계를 어떻게 지각하는나의 문제는 우리가 그것과 어떻게 상호소통 하는가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된다. 나는 내가 공부했던 분자생물학, 인지학, 심리학 등을 통하여 우리의 뇌가 어떻게 일정한 패턴을 찾아가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경이로움”은 내 작업에서 드러나는 일관된 주제이다.

내 작업의 의도는 지각 방식에 대한 전통적인 시각에 도전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관람자로 하여금 새로운 호기심과 즐거움을 불러넣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부분의 내 작품은 체험적이고 인터랙티브한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관람자는 작품 혹은 작업 과정의 일부가 된다.

캐서린 사라 영은 인간의 지각과 그와 관련된 기억, 창조성, 놀이에 대해 탐구하는 작가이자 과학자이며 동시에 디자이너, 탐험가, 저술가이다. 마닐라에서 분자생물학과 생명공학으로 학위를 취득했으며, 바르셀로나에서는 미술 교육으로, 뉴욕 스크로브비주얼아츠에서는 풀브라이트의 지원으로 인터랙션 디자인 석사학위를 받았다. 바르셀로나의 포에트리 브로슬과 뉴욕의 바우어리 포에트리 클럽에서 자신의 시를 낭독하기도 했다. 또한 6년간 필리핀 데일리 인콰이어러의 통신원으로 활동하였다. 그녀의 작업은 예술과 과학을 혼합하여 이야기와 오브제, 경험들을 창조하고 이를 통해 인간과 경이로움 사이의 연결을 가능케 한다. 다수의 학술대회와 강의, 워크샵, 미술관 등에서 자신의 작업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다.

Catherine Sarah Young is an artist, scientist, designer, explorer, and writer whose work primarily explores human perception and its relationships to memory, creativity, and play. She received her degree in molecular biology and biotechnology from Manila, fine art education from Barcelona, and was a Fulbright scholar who obtained her MFA in Interaction Design from the School of Visual Arts in New York. She has read her poetry at the Poetry Brothel of Barcelona and New York City's Bowery Poetry Club. She was a correspondent for the Philippine Daily Inquirer for six years. Her work combines the arts and the sciences to create stories, objects, and experiences that facilitate wonder and human connection. She has spoken about her work in various conferences, lectures, workshops, and museums.

필리핀

Because of my cross-disciplinary training and multicultural experiences, I have witnessed the similarities of the sciences and the arts. Science remains the foundation of my art practice, be it a scientific fact or a property of a certain material. However, it is art that I believe effectively brings out the poetry of science. Art preserves the richness of human experience.

I have primarily concentrated on perception through our senses, which are the tools of human experience. How we perceive the world is a big factor in determining how we interact with it. I look to my studies in neuroscience, cognition, and psychology to see how the brain finds patterns. “Wonder” is a theme that is common in my work.

My intention for my work is to challenge our traditional views of perception, and to ignite the curiosity and playfulness of the viewer. As such, many of my pieces are interactive and immersive, or collaborative and social, where the viewer becomes a part of the piece or the process.



**The Hug Vest**  
2012, 감온변색 페브릭, 가변크기,  
마인드뮤지엄, 마닐라, 2012

**The Hug Vest**  
2012, Thermochromic fabric, Dimensions variable,  
The Mind Museum, Manila, 2012



**Olfactory Memoir of Three Cities**  
2012, 종이 위에 미세캡슐화한 냄새,  
20x25cm, 스크로브비주얼아츠, 뉴욕, 2012

**Olfactory Memoir of Three Cities**  
2012, Microencapsulated smells on paper,  
20x25cm, School of Visual Arts, New York, 2012

미츠노리 키무라는 1983년 일본 시즈오카에서 출생하여 나고야 조형 예술대학에서 수학하였다. 현대 조각가로 활동 중이며, 피에르 루이지 타지가 기획한 《IL DIO DELLE PICCOLE COSE》(이탈리아 까사 마사치오), 한국의 서울시립미술관, 일본의 겐지 타키 갤러리 등에서 전시한 바 있다.

Mitsunori Kimura was born in Shizuoka, Japan in 1983 and studied at Nagoya Zokei University of Art & Design. He has worked as a contemporary sculptor. His work has been exhibited at *IL DIO DELLE PICCOLE COSE*, curated by Pier Luigi Tazzi, Casa Masaccio in Italy, at Seoul Museum of Art in South Korea, and at KENJI TAKI GALLERY, Japan and beyond.

# 미츠노리 키무라

Mitsunori Kimura

일본

미츠노리 키무라는 녹나무를 사용한 인체 형상에서 유화물감으로 만들어진 모기에 이르는 다양한 구상 조각들을 제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작업은 판화에서부터 종이휴지, 드로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매체들을 활용하고 있다. 그의 작품은 환상과 유머, 삶과 죽음 뿐 아니라 자아의식과도 연관되어 있는데, 그는 작품을 통해 '자신이 보았던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여주고자 한다.

Mitsunori Kimura has created figurative sculpture, ranging from a human carved from camphor wood to a mosquito modeled in oil paints. In addition his works in a wide range of media such as printmaking using tissue paper, drawings. His artistic expression is often flavored with fantasy and humor, life and death, as well as self-identification. He has demonstrated in works focusing on 'Things he has seen'.



**The cat along the street**  
2011, 판자위에 유화 물감,  
60.3x91.5x11.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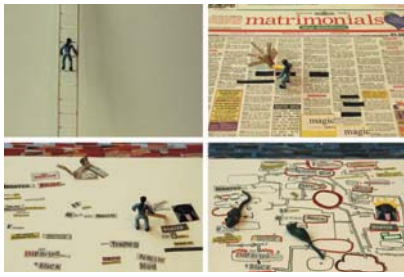
**The cat's nose 2**  
2011, 녹나무에 채색, 0.5x1.2x1.5cm

**The cat's nose 2**  
2011, Color on camphor wood, 0.5x1.2x1.5cm



**Face on rope**  
2010, 밧줄 위에 유화 물감(약 700개),  
가변설치, The man absorbing oil,  
켄지 타키 갤러리, 나고야, 2010

**Face on rope**  
2010, Oil paints on rope (about 700 sculptures),  
Dimensions variable, The man absorbing oil,  
Kenji Taki Gallery, Nagoya, 2010



“Real eyes, Realize, Real lies!”  
2011, 스탱 모션 애니메이션, 1분 15초

“Real eyes, Realize, Real lies!”  
2011, Stop motion animation, 1' 15"

## 마날리 슈로프

Manali Shroff

인도

마날리 슈로프의 작업은 욕망의 허무함과 꿈 그리고 열망들이 지니고 있는 비현실적인 낭만주의에 대해 지속적으로 탐구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여기서 인간의 정치적 행동 방식은 그의 작품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개념이다. 작가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부조리’와 이 ‘부조리’가 ‘자조적’인 의미로 확장되기까지의 습관과 과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무의미한 것들, 환상 그리고 유머에 대한 선호는 그의 작품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또한 작가는 한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특별한 관습들, 신화들 그리고 그릇된 관념들에 대해 탐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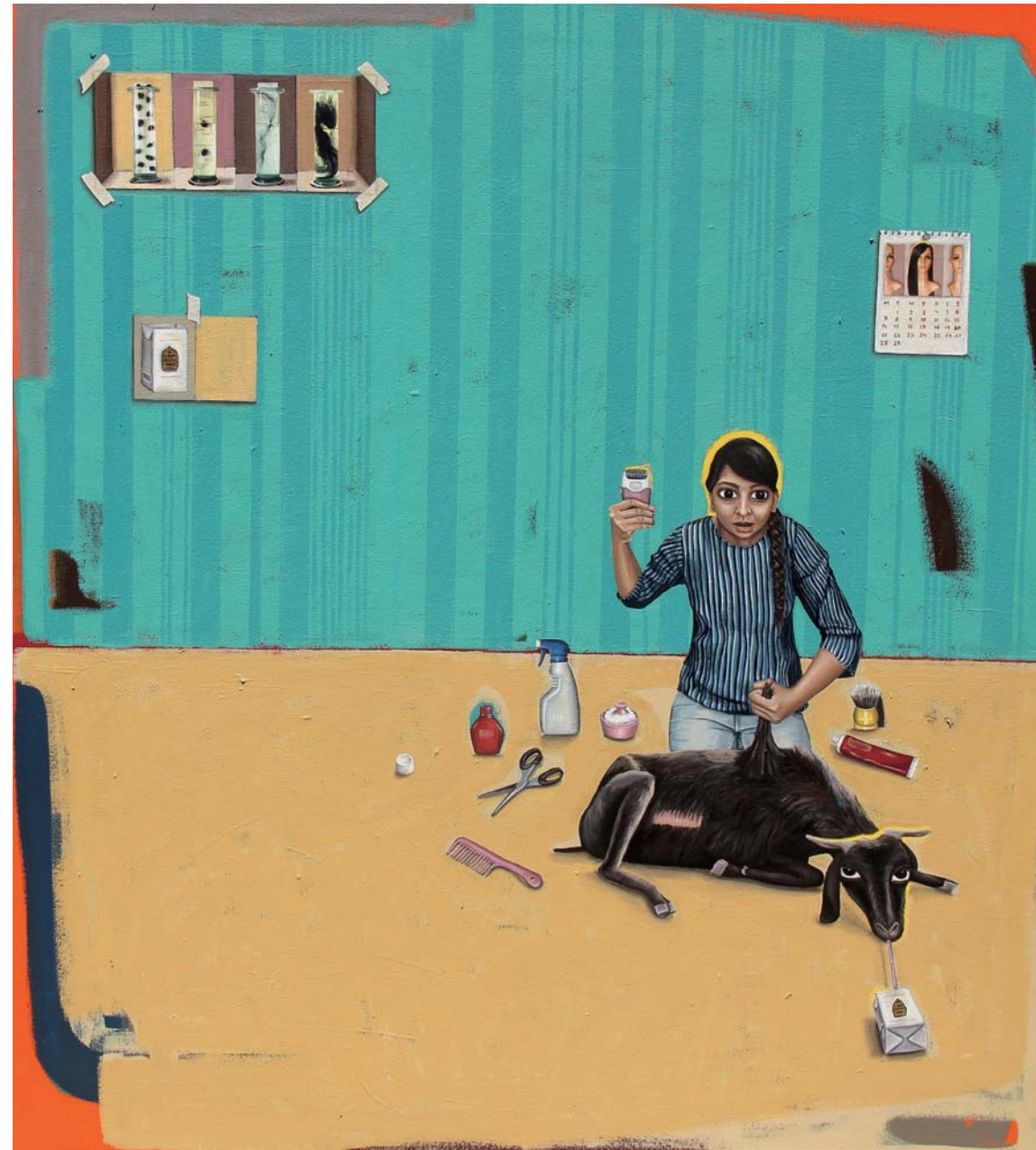
마날리 슈로프의 작업은 매일매일의 일상이 지닌 초현실적 특징으로 가득 차 있다. 비실제적인 것을 통해 실재를 이해하고자 하는 그의 접근 방식은 꿈을 포장하고 판매하는 작업으로 나타나며, 말하자면 이것은 일종의 ‘부조리’한 상품이다. 그의 작품은 기발하면서도 매혹적인 마케팅과 소비주의를 통하여 순수예술과 대중문화 사이의 경계를 흐린다. 작품 속 초현실적 풍경은 끝만 유려하게 포장된 상품 광고와 우리 일상의 시각 풍경을 전형적으로 드러내는 상업주의에 의해 강화된다. 이 관계가 지닌 비현실적이면서도 몽상적 성격은 관람자로 하여금 어떠한 의문이 생겨나는 곤란한 상태로 만든다. 이러한 면에서 그의 작품은 ‘도시 설화’라고도 칭할 수 있을 것이다.

마날리 슈로프는 1986년생으로, 현재 인도와 런던을 오가며 활동 중이다. 런던의 센트럴 세인트 마틴 대학에서 회화로 석사학위를, 인도의 바로다 M.S.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았다. 대학 시절 3년 연속 우등생으로 선정되어 인도 정부로부터 많은 교육적 혜택을 받았다. 델리에서 열린 독립기념일 행사에 학교를 대표하는 우등생으로 국무총리 특별석에 초대받기도 했다. 인도의 권위 있는 대통령상인 발 슈리상을 받았으며 구자라트 말리트 칼라상, 캄린 예술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현재 인도와 영국, 파키스탄, 독일을 오가며 다수의 갤러리에서 전시를 개최 중이다.

1986 born, Manali Shroff is a freelance artist presently working between India and London. She pursued her Masters in Fine Arts from Central Saint Martins College at London. Before this she achieved her Bachelors from the M.S University of Baroda, India. During her Bachelors she was the University topper for consecutive three years. She has been felicitated by the government of India for her excellence in education. She had also been invited to witness the Republic Day parade at Delhi from the Prime Minister's box for being the University topper. Apart from this she is also the recipient of the prestigious Indian President's Award called the Bal Shree Award. She has also won awards like the Gujarat Lalit Kala Award and the Camlin art Award, to mention a few. She is at present exhibiting her work at various galleries across India, U.K, Pakistan and Germany.

Manali Shroff's work forms an ongoing investigation dealing with fragility of desire and the impractical romanticism of dreams and aspirations. Human behavioural politics has been her pivotal concern. What fascinates her is the 'absurdity' that surrounds us and the ritual of performing it till the extent that 'absurdity' changes its definition to 'self mockery'. The love for nonsense, fantasy and humour is very evident in her work. It's through this that she tries to explore the specious customs, myths and false notions in the society.

Her work is suffused with the surrealism of the everyday. Her interest of understanding the real through the unreal has made her look into the idea of packaging and selling the dreams and the so called 'absurd' commodities. Her work exhibits a whimsical fascination with marketing and consumerism blurring the lines between fine-art and popular culture. Her surrealistic landscapes are stimulated by the slick product advertisements and commercials which have epitomized our everyday visual landscape. The dreamlike and unrealistic nature of this relationship creates an enticing predicament, leaving the viewer to question the situation. It wouldn't be wrong to call her works 'urban folktales'.



She cut the hair, short and long,  
Beauty stripped so that she can look strong...  
Greedy barber or the barbaric herd,  
Some live for self & some to build castles so absurd...  
2012, 캔버스에 유화, 152x137cm

She cut the hair, short and long,  
Beauty stripped so that she can look strong...  
Greedy barber or the barbaric herd,  
Some live for self & some to build castles so absurd...  
2012, Oil on canvas, 152x137cm

폴 하지 부트로스는 1982년 레바논에서 출생하였다. 베이루트아메리칸대학교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였으며, 비디오와 혼합 매체를 활용하여 작업을 발전시켜왔다. 2010년 스웨덴 예텐보리로 이주하여 발란트 예술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마쳤으며, 2013년에는 유네스코-아쉬버그 장학연수 프로그램에 선발되어 국립현대미술관 창동창작스튜디오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베이루트 아트센터, 로테르담 국제영화제, 스플리트 국제영화제, 랑콩트르 국제영화제, 스베덴보리 단편영화제 등을 통해 선보인 바 있다.

Paul Hage Boutros was born in Lebanon in 1982. He studied Mechanical Engineer in the American University of Beirut. He worked and developed his own practice in video and mixed media. In 2010 he moved to Gothenburg, Sweden where he finished his MFA at Valand School of Fine Arts. In 2013, Hage Boutros became a laureate for the UNESCO-Aschberg Bursaries For Artists Programme at the National Art Studio, Changdong. His works were exhibited at the Beirut Art Center, Rotterdam International Film Festival, SPLIT Film Festival, Rencontres Internationales Film Festival, and Swedenborg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 폴 하지 부트로스

Paul Hage Boutros

폴 하지 부트로스의 작품은 고물, 음식물 쓰레기 혹은 사용자로부터 버려져 본래 제품의 기능과 목적을 상실한 것들을 재조합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또한 목살된 감정이나 잊혀진 순간들, 그리고 내면의 억눌린 욕망들을 포착한다. 작가는 작품을 통하여 진부하고 일상적이어서 무시되었던 것들에 생명을 불어넣고 새로운 권위를 부여하고자 한다.

작가가 가진 삶에 대한 개념은 시간에 대한 관념과도 일치한다. 즉 그의 작업은 시간에 대한 우리의 지각 방식을 변형시킨다. 그의 작업은 천연자원의 고갈과 전 지구적 소비지상주의의 시대에서 시간과 문화 생산에 대한 기존의 관념들을 마주하고 이것에 대해 다시금 이야기해보기 위한 시도라 할 수 있다.

One part of Paul Hage Boutros's work deals with the recollection of junk objects, leftovers, and remains for which the initial user has no further use in terms of his/her own purposes of production. A second part tries to capture disregarded feelings, forgotten moments and suppressed desires of the psyche. His work strives to resurrect life to these subjects so the most mundane, and disregarded become endowed with a new grandeur. Alongside the notion of life comes the concept of time; his works stretch, transform and play with our perception of time. They re-articulate and confront the notion of time and cultural production in the age of natural resource depletion and global consumerism.

레바논



Assembly-1  
2012, 조각, 260x360x80cm

Assembly-1  
2012, Sculpture, 260x360x80cm

Assembly-1  
2012, 조각, 260x360x80cm

Assembly-1  
2012, Sculpture, 260x360x80cm



하나에 우타무라는 1980년 일본에서 출생하였으며 영국 골드스미스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웰시 예술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2011-12년도 엑시스/피렌체 트러스트 어워드 주관으로 행해진 피렌체 트러스트 레지던스 프로그램에서 엑시스 "MA Star"로 선정된 바 있다. 제니퍼 히지와 레베카 워렌이 런던의 스튜디오 볼테이흐에서 기획한 전시 《SV10: Members' Show》등의 단체전에 참여하였으며 런던의 WW갤러리, 일본 아이치 트리엔날레 등에서 개인전을 개최한 바 있다. 2013-14년 독일 슈투트가르트의 솔로스 솔리튜드 아카데미 펠로우십에 참여할 예정이다.

Hanae Utamura(BA: Goldsmiths College; MA: Chelsea College of Art and Design) was selected as an "MA Star" by Axis, winning a residency at the Florence Trust, courtesy of the 2011-2 Axis/Florence Trust Award. She exhibited in group shows such as SV10: Members' Show curated by Jennifer Higgie and Rebecca Warren at Studio Voltaire, London; a solo show at WW Gallery, London; and the Aichi Triennale in Japan among many others. Her work has been acquired by private collections in the UK. Hanae will participate in the Akademie Schloss Solitude Fellowship for 2013-4 in Stuttgart, Germany.

# 하나에 우타무라

Hanae Utamura

일본

하나에 우타무라는 비디오와 조각 그리고 사진을 이용하여 도시와 지구의 자연 풍경 사이에 위치한 인간의 조건들에 대해 탐구한다. 그의 작업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비밀 퍼포먼스 시리즈이다. 여기서 작가는 항상 익명의 작은 형상으로서 2011년 일본 쓰나미 피해 지역과 절벽의 끝, 사막, 폭설, 해안선, 언 호수와 같은 거친 자연에 대항하여 한계에 부딪힌 인간의 육체적 능력이 극한에 달한 상황에 매우 교묘하고 지속적으로 개입한다. 여기서 그의 행동들은 결코 사전에 미리 계획되었거나 연출된 것이 아니다. 작가는 미와 폭력, 부조리와 같은 조건들이 모두 드러난 상태에서 풍경에 개입함으로써 어떠한 힘이 드러나는지에 대해 기록한다. 그의 작품은 육체적이고 비언어적인 경험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세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바꿀 수 있으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Hanae Utamura contemplates the human condition in urban and natural landscapes on earth using video, sculpture and photography. Her work is best known by her secret performance series, in which the artist, always a small, anonymous figure, makes subtle, insistent interventions in edge territories where human physical capacity meets its limits next to the force of wild nature, such as a cliff's edge, desert, deep snow, shoreline beach, atop an iced lake and into tsunami-stricken areas in Japan in 2011. Her action is never rehearsed or acted out, and the work documents how these forces appear through the interventions in landscapes, revealing their conditions of beauty, absurdity, and violence. Her practice proposes, through art, how seeing physical, non-verbal experiences transform our beliefs about the world, leading to change as an echo of it.



**Wiping the Snow** | **Wiping the Snow**  
2011, HD Video, 5분 | 2011, HD Video, 5'



**Wiping the Sahara Desert** | **Wiping the Sahara Desert**  
2010, HD 비디오, 4분 40초 | 2010, HD Video, 4' 40"

캐롤리나 브레굴라는 폴란드 출신의 멀티미디어 작가로 설치와 해프닝, 비디오 그리고 사진을 다룬다. 폴란드 우치에 위치한 국립 영상학교를 졸업하였으며 현재 동대학원의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다. 바르샤바 국립미술관(폴란드), 바르샤바 국립현대미술센터(폴란드), 칼마르 미술관(스웨덴), 하트포드의 리얼아트웨이(미국) 등에서 작품을 전시 및 상영한 바 있다. 삼성예술대상, 폴란드문화부장관상, 비셰그라드 장학금, 영 폴란드 장학금 등을 받았으며, 『Fire-Followers』(2013), 『Art Translation Agency』(2010), 『Let Them See Us』(2003)의 저자이기도 하다. 현재는 바르샤바에서 거주하면서 활동 중이다.

Karolina Breguła is a Polish multimedia artist, creates installations, happenings, video, photography. She has graduated from the National Film Television and Theatre School in Łódź where she now has been working on her Phd. She has performed and exhibited in galleries such as National Museum in Warsaw (Poland), Centre for Contemporary Art Ujazdowski Castle, Warsaw (Poland); Centre for Contemporary Art Łaźnia, Gdańsk (Poland); Kalmar Museum of Art, Kalmar (Sweden); Real Art Ways, Hartford (USA). She has been awarded the Samsung Art Master prize, the Polish Ministry of Culture Scholarship, the Visegrad Scholarship and the Mroda Polska Scholarship. She is the author of works such as *Fire-Followers* (2013), *Art Translation Agency* (2010) and *Let Them See Us* (2003). She lives and works in Warsaw.

# 캐롤리나 브레굴라

Karolina Breguła

폴란드

나는 지난 10여 년간의 작업 활동을 통하여 다양성과 관용, 문화적 차이 그리고 나라와 국가들을 분리시키는 언어적 경계와 역사적 갈등과 같은 주제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사회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그것들 중 일부는 상당한 성공을 거두어 사회적 논쟁의 불을 지피는 시발점 역할을 하기도 했다.

나는 예술의 영향력에 대해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예술을 어떻게 수용하는가에 대하여 조사하기 시작했다. 나는 갤러리에 방문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그들의 방문 목적과 필요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현대 미술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도는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고자 했다. 이를 통해 나의 작업은 수용자와 작가, 작품과 문화 기관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나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지 않은 예술의 수용자들이 현대미술과 맺고 있는 관계성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또한 오늘날의 사회에 존재하는 예술을 위한 장소들을 살펴보고 현대 사회에서 문화 유산이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문화에 대한 의미를 구축하고 자기 분석하는 과정은 최근 나의 작업의 주축을 이룬다.

Throughout the 10 years of my art practice I have been doing a lot of social projects focusing on the issues of diversity, tolerance, cultural differences, language barriers and historical conflicts causing the distance between people of different countries and nations. Some of them became really successful in starting a fire of a true social debate.

Having thought a lot about the influence of art I naturally started researching the art reception. I wanted to find out who goes to galleries, what are their aims and needs, what is the general understanding of contemporary art. The conclusions I made led me to focus my art practice on the the art receiver, the artist, the piece of art and the culture institution.

I am researching unprofessional art receivers and their relation to modern art. I am looking for the place for art in today's society and the role the art heritage can play in contemporary world. Building the meanings and auto analysis of culture have become the sense of my latest artistic activ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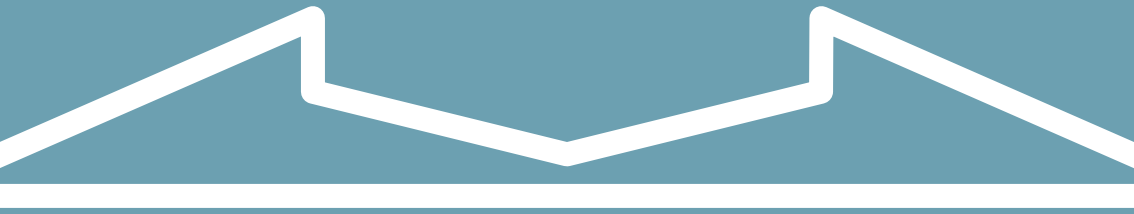
**Fire-Followers** 2013, 비디오, 48분 46초 | **Fire-Followers** 2013, Video, 48' 46"



**Corrective photographs** 2011, 설치 | **Corrective photographs** 2011, Installation



**Kippenberger cookies** 2012, 설치 | **Kippenberger cookies** 2012, Installation



창동  
창작  
스튜디오

National Art Studio, Changdong



창동  
창작스튜디오

유네스코-아쉬버그 장학연수 프로그램	캐롤리나 브레굴라/폴란드 • 06 하나에 우타무라/일본 • 08 폴 하지 부트로스/레바논 • 10
아시아 퍼시픽작가 입주프로그램	마날리 슈로프/인도 • 12 미츠노리 키무라/일본 • 14 캐서린 사라 영/필리핀 • 16 데바슈리 다스/인도 • 18 압두스 살람/방글라데시 • 20 프란딕 칼리타/인도 • 22
수교 기념 초청	린다 퀴란/아일랜드 • 24 마이야 블라필드/핀란드 • 26 미코 쿠오린키/핀란드 • 28 클로다 이모/아일랜드 • 30
지역연계 프로젝트	김인숙, 김명권/한국 • 32 인사이트씨잉/한국 • 34
	운영프로그램 • 36 활동현황 • 38

National Art Studio,  
Changdong

UNESCO-ASCHBERG BURSARIES FOR ARTISTS PROGRAMME	Karolina Bregula/Poland • 06 Hanae Utamura/Japan • 08 Paul Hage Boutros/Lebanon • 10
ASIA PACIFIC ARTISTS FELLOWSHIP PROGRAM	Manali Shroff/India • 12 Mitsunori Kimura/Japan • 14 Catherine Sarah Young/Philippines • 16 Debasree Das/India • 18 Abdus Salam/Bangladesh • 20 Prandeeep Kalita/India • 22
INTERNATIONAL ARTISTS FELLOWSHIP PROGRAM	Linda Quinlan/Ireland • 24 Maija Blåfield/Finland • 26 Mikko Kuorinki/Finland • 28 Clodagh Emoe/Ireland • 30
COMMUNITY ART PROJECT	KIM insook, KIM Myongkwon/Korea • 32 Insightseeing/Korea • 34
	PROGRAMS • 36 ACTIVITIES • 38

2013 국립현대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창동

---

Artists in Residence - Changdong 2013  
Art Studio of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Korea